

# 하나님의 말씀

물질적 창조물의 생성과 변형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 목차

7113 창조물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4
물질 창조물이 생성된 원인.....	6
7399 모든 창조물을 창조한 이유. 루시퍼의 타락.....	6
5866 빛의 불씨.....	7
8621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종류.....	8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결과.....	11
7505 저항이 없는 사랑의 비추임.....	11
7812 깊은 곳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깨달음.....	12
8569 능력을 창조물로 변경시킴.....	13
영적 창조와 물질적 창조.....	16
5447 창조란 무엇인가?.....	16
6464 혼의 입자.....	17
2494 물질과 영. 영적인 입자로서 영적인 존재와 한 영으로써 독립적인 영적인 존재.....	18
2495 물질과 영. 보이는 창조물과 보이지 않는 창조물.....	19
물질 창조물의 생성.....	21
4489 물질의 기원. 물질은 무엇인가?.....	21
5722 물질의 기원. 전자.....	22
4067a 전자(電子).....	24
4067b 전자(電子).....	26
7070 굳어진 입자들을 사랑의 힘으로 감싸는 일.....	27
7802 영은 굳어진 능력이다.....	29
8961 물질은 압축 된 영적인 능력이다.....	30
물질의 상태.....	32
2852 굳은 형체 안에서 고통이 충만한 상태.....	32
6988 로마서 8장 19 절에서 22 절에 나오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의 고통.....	33
물질의 변형.....	35
0831 혼의 입자의 운반자로서의 물질. 창조적 의지. 분해. 다시 모임.....	35
1433 굳은 형체의 본질. 물질.....	35
1568 거친 물질. 형체. 입자.....	36
1592 문제. 섬김. 자유의지의 남용.....	37
2169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굳은 형체가 풀리는 일.....	38

2333 물질을 재구성하는 일. 섬기는 일. 활동. 높이 성장하는 일.....	40
2789 물질. 변화와 성장. 섬기는 일.....	41
2910 물질의 변형. 분해. 성장 과정.....	42
3993 물질을 재구성한다. 일하는 축복. 구원.....	44
6386 굳은 물질로부터 구속.....	45
4466 사람을 향한 물질의 영향.....	46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하려는 의지.....	48
5479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이 굳어진 역사이다.....	48
7757 아직 형체를 입지 않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	49
8891 귀환의 길 가운데 받는 영적인 도움. 자유의지.....	51
3943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지. 영적인 창조물과 물질적인 창조물.....	52

창조물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B.D. No. 7113

1958년 5월 6일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기적이 너희에게 느낌을 주지 못한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주 작은 창조물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생성되었음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단지 너희를 위해 이런 창조물들을 생성했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열정으로 창조물들을 사랑해야만 함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모든 창조의 작품들을 지나친다. 창조의 작품들이 너희에게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너희에게 창조의 작품들은 너희 심장에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죽은 대상이다.

창조물들은 자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도 되지 못하고 너희는 이 창조물들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없이 스스로 생성된 것으로 여긴다. 너희의 이 땅의 삶 전체가 유일한 기적이다. 왜냐면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모든 기능과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생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가장 큰 기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너희는 무관심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희가 존재하는 것처럼 창조되었는지 생각해보지 않고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간다. 너희 주변의 모든 창조물이 너희 안에 수천가지의 질문을 일으켜야만 하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눈먼 상태로 지나 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 창조물을 통해 너희 사람들에게 단지 희귀하게 말할 수 있다.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의 작품을 너희 눈 앞에 두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창조의 작품을 관찰하여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할 수 있기에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생각으로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며 너희의 무관심과 안락함에서 흔들여 깨우려고 하면서 자신을 계시한다.

너희는 운명적으로 너희 자신이 단지 인간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너희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실패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큰 권세가 역사함을 너희에게 다시 보여주기 원한다. 너희는 이 권세를 향한 길을 택해야 하고 생각으로 너희 자신을 이 권세에 의탁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들과 하나님과 연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연결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연결은 너희가 항상 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의 작품을 통해 쉽게 이룰 수 있다.

창조물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일 만이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 받기위해 이미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반면에 창조의 작품들은 모든 사람이 이런 연결을 이루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단지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의 작품들을 깊이 생각하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을 깨달을 수 있다. 사람이 보이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부분적으로 인간으로서 그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부분적으로 아직 성장 과정에 뒤쳐져 있는 그러므로 이 땅의 과정을 가는 사람들 아래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인간으로 언젠가 존재하게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생성되었다는 생각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한번 진지하게 창조물과 창조물들의 창조주에 관해 생각해보는 사람은 이를 추측할 수 있고 나중에는 알 수 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의 모든 이 땅의 삶의 과정을 정할 수 있는 계시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신의 창조주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경외심과 사랑이 그를 감싸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하면서 그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게 하면서 가능성이 주어지면, 내적인 음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직접 계시하면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왜냐면 창조의 기적의 올바른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의 심장은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환경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이제 굳은 연결이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 안에서 사랑을 불타오르게 한 사람의 심장 안에서 사랑 자신이 자신을 계시할 것이다.

아멘

모든 창조물을 창조한 이유. 루시퍼의 타락.

B.D. No. 7399

1959년 8월 27일

**원**래 초기에 너희는 자유하고 빛과 능력이 충만한 존재였다. 너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었고 이런 일을 내 뜻대로 행했다. 원래 초기에 너희는 너희를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었고 너희는 최고의 축복을 주는 모든 온전함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신적인 형상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너희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니었고 창조로 인한 것이었다. 왜냐면 나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것이 창조될 수 없고 무한 가운데로 생성되어 나오게 된 모든 창조된 존재들이 내 원래의 성품과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모든 존재들의 창조주였다. 그러므로 피조물도 내 원래의 성품과 같은 온전하게 만들어진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창조로 만족하지 않았다. 내가 창조한대로 존재해야만 하는 존재로 나는 만족하지 않았고 내 주변에 나와 같이 형성된 이런 형성을 스스로 이론 존재를 갖기 원했다. 이는 모든 창조물을 창조한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창조하는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게 들린다.

그러나 영이 깨어난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그들에게 연관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온전하게 창조된 존재는 그가 단지 내 뜻대로 일하는 동안에는 그러므로 그의 생각을 나로부터 받고 내 뜻대로 이 생각하는 동안에는 단지 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존재는 그의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충분하지 않은 단지 내 피조물이고 내 피조물로 머문다. 그러나 나는 모든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다. 왜냐면 자유의지는 절대적으로 온전한 존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자유의지가 피조물에서 나와 함께 내 곁에서 최고로 축복된 가운데 창조하고 역사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 존재 자신에 의해 계속 실행이 되어야 하는 내가 시작한 역사가 이제 완성되게 도와야 했다.

자유의지에 위로나 또는 아래로 제한이 가해져 있지 않다. 이런 자유의지가 이제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다. 나를 떠날 수 있는 피조물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머물러야 한다. 이로써 신성을 증명해야 한다. 존재들은 최고의 빛의 상태에 있었고 나를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실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목표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이 나를 보기 원했던, 내가 그들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었던 것과 다르게 그들이 이 목표를 볼 수 있었다. 루시퍼는 나로부터 첫 번째로 창조된 작품이고 모든 아름다움으로 빛났던, 이런 아름다움 가운데 볼 수 있는 존재로 머문, 볼 수 있는 천사의 영이었다.

루시퍼도 자유의지의 시험을 치러야만 했다. 그도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자신으로부터 우러나와 내 의지에 복종하면서 그가 그의 신적인 성품에 합당하게 그의 의지를 내 영원한 질서에 따르게 하면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가 잘못 된 방향을 향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의지로 나를 떠나 나 자신의 반대 극이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았다. 그가 이런 생각으로 다른 존재들에게 역사하였을 때 나는 그들을 막지 않았고 그들이 전적으로 자유 가운데 나를 또는 그를 결정하게 놔두었다.

바로 이런 결정이 비로소 내 사랑으로 생성된 내 사랑이 내 자녀로 만들기를 원했던 존재들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되는 역사는 존재들 자신의 역사이고 그들의 역사로 남는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의해 창조된 모든 존재들이 그들의 결정을 하는데 전적인 자유를 갖게 해주었다.

단지 작은 무리들이 이런 의지의 시험에 합격했고 내 곁에 머물렀다. 반면에 가장 큰 무리는 루시퍼를 따랐고 이로써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빛과 능력과 자유를 잃었다. 그는 끝 없이 긴 기간이 지난 후에 빛과 능력과 자유를 다시 얻을 수 있다. 그는 창조할 때 가진 내 계획대로 이제 최고로 축복된 가운데 자녀로서 내 곁에서 머물기 위해 자유의지로 이런 자녀들에 속하기 위해 자신을 형성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언젠가 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아멘

빛의 불씨.

B.D. No. 5866

1954년 2월 1일

**너**희 자신을 나에게서 떨어져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남아 있는 빛의 불씨로 여겨라. 빛의 불씨는 그의 광도가 감소했지만 절대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고 항상 나로부터 새로운 영양을 공급받아 아주 작은 빛의 불씨조차도 다시 타오를 수 있고 불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런 불씨들과 연합할 수 있고 즉 빛의 출처인 나 자신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장 밝은 광도로 빛날 수 있다.

너희 모두는 나에게서 발산된 빛의 불씨이고 빛의 불씨들이 그들의 광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를 붙잡도록 발산되어 내 보내졌다. 또는 그 자체로 힘인 무한한 내 사랑의 불이 존재들을 생성했다. 이런 존재들은 마찬가지로 사랑이었고 존재들이 이제 그들의 사랑의 힘으로 일해야 한다. 이 일은 끊임없이 사랑의 힘을 증가시키는 일과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랑의 화염으로 확장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한의 세계를 향해 흘러갔고 사랑이 창조하고 일해야 하고 이로써 모든 것을 빛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사랑은 결정해줄 수 없고 사랑이 자유 가운데 역사하는 동안에 단지 사랑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랑이 저항에 부딪히면, 효력을 즉시 멈춘다. 이로써 사랑이 저항을 받는 곳에서 세상에 힘이 감소하고 빛이 줄어드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이 나로부터 직접 발산되었고 엄청난 힘과 빛의 효력을 가진 하나님의 것이지만 같은 사랑이 이런 사랑에게

다가오지 않고 대적하는 세력이 사랑에 저항을 하면, 이런 사랑의 효력이 가장 작게 이글거리는 불씨처럼 감소가 된다. 대적하는 세력은 원래 더 강한 빛의 불씨로써 나에 의해 발산되었고 나로부터 끝없이 멀어졌고 원래의 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한 끊임없이 흘러주는 힘의 흐름을 거부하는 세력이고 이런 세력이 저항했고 이로써 저항을 줄일 때까지 사랑의 힘과 사랑의 불의 효력을 무산시켰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빛의 불씨로 여긴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최고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정함을 받았지만 단지 자신의 저항을 통해 힘과 빛의 풍성함을 감소시킨 어떤 신적인 존재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면 저항은 나에게 돌아서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너희의 시작점으로 도달하려고 추구하고 계속해서 너희 안의 사랑의 불을 타오르게 하고 이를 통해 너희 안의 사랑의 불이 영원한 사랑의 불과 하나가 되고 너희가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내 사랑의 빛이 너희 안으로 비출 수 있게 하고 너희가 내 일부로서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불씨를 이제 또한 타오르게 하고 저항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이 너희에게 역사하게 해서 이를 통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원래의 빛은 나로부터 나온 빛으로 깨닫는다면, 너희가 언제든지 빛과 힘의 충만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종류.

B.D. No. 8621

1963년 9월 20일

**너**희가 이를 항상 깨달을 수 없을 지라도 내 귀환의 계획은 가장 깊은 사랑과 지혜에 기초해 있다.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내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나만이 너희에게 다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나로부터 타락이 여러 종류라는 것을 설명한다.

왜냐면 존재들은 실제 그들의 의식적인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고 내 사랑 앞에 교만해지는 저항으로 모두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거절하는 방식에는 대적자가 존재들을 창조할 때 루시퍼 편에서 가진 저항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그의 능력도 저하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나로부터 실제로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그에게 흘러 들어 갔다. 그러나 그가 교만으로 인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면 그는 자신에 의해 창조된 큰 무리를 보고 이 능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나에 대한 저항이 증가함에 따라 그의 능력은 줄어 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능력으로 항상 새로운 존재를 그러나 많거나 또는 적게 그의 나에 대해 대적하는 의지를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생성시키는데 사용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다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적인 창조물로 여겨져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이 생성된 능력은 내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나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왜냐면 만약에 루시퍼가 존재들에게 나를 대적하라고 강요를 했으면 내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들은 자유롭게 나를 깨닫고 나에게 남은 능력이 있었다. 이들은 나로부터 그에게 흘러 들어가는 사랑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들 중 일부 어떤 존재들은 나에게 신실하게 남았다. 그들은 나를 깨달았고 내 사랑의 흐름의 영역에 머물렀다. 처음 창조 된 존재 중에 원래 초기에 가장 높은 빛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의지가 내 대적자의 역사를 통해 약해지지 않았던 많은 수 나를 떠나 대적자를 따랐다. 이처럼 모든 순간 그대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 대한 관점은 서로 달랐다.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한 것만으로도 존재를 죄짓게 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것이 성장해 가장 깊은 미움으로 까지 증가되었다.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루시퍼 스스로 변화 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이런 영들은 끝 없이 깊은 곳으로 떨어졌고 그러므로 최종적인 귀환에 이르기 위해 훨씬 더 먼 길을 가야만 하게 되었다. 대부분 이런 존재들에게는 한번의 성장 기간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여러 차례의 성장 기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미 많은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들은 실제로 예수의 구속사역을 통해 그들의 마지막 형체를 벗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이 땅에서 완성에 이르지 못하면, 창조물 안을 거치는 과정을 가야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너희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보일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죄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는 항상 모든 존재들이 깨달음의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전적인 의식 가운데 나를 대항했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이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거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높은 권세에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 권세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나를 다시 인정한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죽음 후에 높은 것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저세상으로 영접받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내 피조물 가운데 불의를 발견했다고 믿으면, 가장 힘든 운명일지라도 한때 나를 대적해 지었던 죄와 견줄 수 없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나로부터 타락한 죄가 여러 가지 정도로 또는 여러 가지 단계로 일어났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절대로 이런 죄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 이런 죄는 대부분 한번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 하지가 않다.

너희 자신들도 최종적으로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제 너희가 완성에 이를 수 있는 성장단계 도달하기까지 이런 다시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 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나 내적으로 선한 생각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을 창조한 권세에 대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 위의 한 권세를 어떻게 상상을 하건 이 권세를 믿고 그들의 환경 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취시키는 이 땅에서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저세상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다시 빛에 도달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한때 범했던 큰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게 되고 다시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 저세상에서 이제 열심히 일할 것이다. 한때 가장 밝은 깨달음 가운데도 나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은 끝 없이 긴 성장 과정 후에 깊은 깨달음이 없이도 나에게 헌신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의 심장 안에 내면으로부터 역사할 수 있는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자신의 주변에 사랑을 비출 수 있는 사랑의 불씨를 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아직 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영으로 있으면, 다른 많은 높이 성장한 사람들처럼 다시 이 땅의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시작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악한 영들도 언

젠가는 목표에 도달하고 자신이 한때 나를 대적했던 죄를 이런 식으로 밖에 속죄할 수 없음을  
마지막에 가서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그가 이 땅에서 저세상에서 영접해야  
만 함을 깨닫게 된다. 그는 언젠가는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유  
롭게 나를 고백하고 그가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축복될 것이다.

아멘

저항이 없는 사랑의 비추임.

B.D. No. 7505

1960년 1월 22일

**원**래 초기에는 단지 빛과 능력이 충만한 존재들만이 있었다. 어두움과 무능력은 나를 떠난 죄의 결과로 비로소 나타났다 왜냐면 죄를 통해 존재들이 그들의 원래 초기의 성품을 반대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에게서 빛과 능력을 빼앗았다. 그들은 빛과 능력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왜냐면 그들은 의지적으로 나를 떠나 원초의 법칙에 묶인대로 사랑은 단지 사랑에 임하지만 그러나 모든 저항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내 사랑의 힘의 역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존재들이 나를 떠나 갔을 때 그들은 내 사랑의 비추임을 거부했다. 이런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의지가 그들의 영을 어둡게 했다.

그들은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사랑의 비추임에 근원이 된 그들의 능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깨달음을 잃었다. 그러므로 존재는 부족하게 되었다. 존재는 그들이 창조되었을 당시와는 반대로 되었고 이로써 내 곁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왜냐면 의식적으로 나를 떠남으로 그가 내 사랑의 힘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존재는 나를 떠나게 되었고 자신의 자유의지의 결과대로 그 전에는 나도 사랑의 힘이 존재들을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나를 내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존재는 이제 자신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축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처하게 되었다. 그럴지라도 다시 변화되는 일은 언젠가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면 나에 의해 창조된 어떤 것도 영원히 나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존재들이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사랑의 힘이고 언젠가는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나와 내 사랑의 힘이 거부당하지 않고 존재에게 다시 비칠 수 있기 전에 그에게 작은 빛을 줄 수 있기까지 존재는 강제적으로 성장하게 인도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작은 빛은 밝은 사랑의 빛으로 빛나기 위해 그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어 그가 다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나를 갈망하게 하기 위해 그 자신이 양분을 제공해줘야만 한다. 사랑의 비추임을 받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혼이 어느 정도의 성장 정도에 도달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존재는 아주 긴 이 전의 성장 과정을 통해 이로써 나에게 아주 적게 가까이 다가 오게 되어 언젠가 다시 존재가 인간으로 자유의지의 상태로 이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 내가 역사할 수 있게 될 이런 성장 정도에 도달해야만 한다. 타락한 존재에게 빛과 능력이 부족하다. 존재는 자신이 깊은 곳을 전적으로 벗어날 수 있기 위해 다시 사랑이 돼야만 하는 그의 원래의 성품인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 빛과 능력에 다시 도달해야만 한다.

이런 일은 단지 저항을 받지 않고 영접받아 역사할 수 있게 된 내 사랑의 비추임만이 이를 수 있다. 성장 과정에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깨달음이 아직 없는데 이런 사랑의 비추임이 아직 방해받지 않고 일어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빛이 없는 상태가 해결되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능력을 받기 위해 내 사랑의 빛이 필요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모든 저항이 사라진다는 것은 확실하다. 언젠가 사람이 자유의지로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의 영역 안에 거한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가 빛과 능력을 갈망하게 되고 자신의 축복을 위해 이제 계속하여 비추임을 받기 위해 사랑 안에서 나에게 헌신하는 일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성품도 변화되기 때문이다. 존재는 빛과 능력 가운데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었던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존재는 다시 내 가까이에 거하고 나와 함께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더 이상 내 사랑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의지로 자신을 열고 그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과 목표이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항상 목적과 목표로 남게 될 나에게 귀환을 이룬다.

아멘

깊은 곳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깨달음.

B.D. No. 7812

1961년 1월 31일

**빛** 은 깨달음이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다. 빛은 단지 영원한 빛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신적인 지혜이다. 너희가 자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왔을 때 이 빛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비추어 졌다. 너희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너희에게 어떤 지식도 숨겨져 있지 않았다.

너희는 밝고 선명하게 모든 연관관계를 깨달았다. 너희는 축복 되었다. 왜냐하면 너희는 최고의 지혜 가운데 있었고 너희가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고 이 존재가 너희를 말할 수 없이 축복되게 해준 너희 모두의 창조주요 조성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은 넘치게 축복된 상태였다. 너희들 자신이 자유의지로 이 상태를 버리지 않았으면, 너희가 절대로 이 상태를 잃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밝은 빛 가운데도 가장 밝은 깨달음 가운데도 너희는 스스로 어두움을 택했다. 너희는 빛의 근원으로부터 너희의 창조주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렸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스스로 빛과 축복을 버렸다. 어두움이 너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너희에게 능력과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무기력하게 너희를 이런 어두운 상태에 빠지게 한 너희가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

이제 너희 사람들은 왜 창조주가 그에게 자기를 벗어나서 빛을 버리고 어두움에 빠지게 허용하였는지 질문한다. 너희는 모든 권세를 가진 그의 성품이 사랑과 지혜인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를 떠날 때 왜 막지 않았는지 질문한다. 이 질문은 단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커서 그가 존재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줄 수 밖에 있다. 그의

영원한 지혜가 이런 깊은 곳으로 타락의 목표를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이 목표는 그와 같은 존재와 언젠가 역사하고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온전한 정도에 도달한 존재를 그의 권세로 절대로 만들 수 없다.

왜냐면 이렇게 되는 일은 자유의지가 요구되고 온전한 정도는 자유의지가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진실로 어떠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도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강요하지 않았다. 타락한 존재들이 절대로 타락하게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첫 번째로 창조된 영인 루시퍼도 하나님께 남을지 자유로운 가운데 있었다.

왜냐면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는 자신에게 신실하게 남은 존재에게 최고의 축복을 베풀 정도로 충분히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도 깊은 곳으로 타락할 필요가 없었고 그의 의지가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첫 번째로 창조된 빛의 전달자를 위한 결정을 할지 전적으로 자유했다.

그러나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깊은 곳으로 타락하는 일을 존재 스스로 완성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러나 그들에게 아주 큰 축복을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는 그의 계획에 고려했다.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깊은 곳으로 타락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깊은 곳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관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잃었고 그들의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헤아려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헤아려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영의 역사를 통해 깨우침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너희 사람들은 아직 이런 빛이 없는 상태에 거하고 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너희는 다시 온전한 상태에 이미 도달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넘치게 영광 된 목표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의 능가할 수 없는 지혜를 깨달을 것이다. 너희는 그가 단지 선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음을 그가 자신에 의해 생성된 존재들을 넘치게 축복되게 해주기를 원함을 알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믿음으로 너희가 완성에 이르기를 기다릴 것이다.

완성이 된 가운데 너희는 빛과 능력과 자유가 제한이 없는 축복을 만들 수 있다. 너희는 영원으로부터 그가 목표했고 목표한 것처럼 그의 자녀로서 그와 함께 그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

아멘

능력을 창조물로 변경시킴.

B.D. No. 8569

1963년 7월 25일

**나**를 떠나 타락한 모든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들은 분해돼야만 했다. 왜냐면 내가 그들에게 정해 준 그들의 사명을 성취시키지 못했고 만약에 그들에게 나를 대적할 능력이 있었다면, 나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계속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 사랑의 힘을 거절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 스스로 굳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들로 분해시켰다. 다시 말해 한때 존재로 발출되어 나온 능력을 모든 종류의 창조물로 변화시켰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존재들이 다른 형체 안에 있게 되었다.

너희가 너희 주변의 창조물들을 관찰하면, 너희는 이 모든 창조물들이 내 의지에 따라 나를 섬기려고 하지 않은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의무 상태에서 섬겨야만 하는 다시 말해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만 하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로써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에게 정해진 것을 가지고 있다.

내 사랑과 지혜가 창조물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성장하게 만드는 목적에 합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깨달은 대로 창조물들은 다른 창조작품들의 생성과 유지를 섬기고 있다. 한 때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가 자유의지 가운데 내 사랑의 힘에 비추임을 거절했다. 그들은 내 의지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항했다.

그는 자기를 의식하는 것을 잃게 되었다. 왜냐면 원래의 성분으로 모든 창조 작품 안에서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분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능력의 근원인 나로부터 나온 모든 능력은 내 의지에 따라 역사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의지에 대항하는 역사를 막을 줄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타락한 존재들이 섬겨야만 하게 만들 음으로써 이를 통해 그들에게 모든 창조물들의 목표와 목적인 성장이 보장되게 하면서 내 의지가 역사할 수 있는 상태로 했다.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즉 모든 분해 된 입자들이 다시 모여서 내가 한 때 창조했을 때처럼 다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될 때까지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으로써 전적으로 다시 내 의지와 하나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즉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의 단계에서 존재는 다시 자기를 의식한다. 존재가 나와 하나가 되는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단지 따르기만 하면 되는 내 의지를 이제 알게 된다. 내 의지는 단지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요구한다. 내 의지는 존재가 내 대적자의 가장 큰 죄악인 모든 자기 사랑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 의지는 단지 전혀 사랑이 없는 존재의 성품이 나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존재가 거절하지 않고 그가 한 때 거절했던 사랑을 다시 영접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존재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고 빛과 영광의 내 나라의 내 자녀로 영접될 수 있다. 그러면 이로써 존재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완성시켜야만 할 귀환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다.

존재는 다시 그의 아버지의 집 안의 나에 게로 돌아온 것이다. 너희의 실제적인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면, 너희는 내 의지를 성취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너희는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의 책임을 의식할 것이다. 그는 이에 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될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생각으로 기도로 또는 사랑을 행함으로 나에게 향하면, 항상 주어질 수 있는 내 사랑의 빛을 그들이 단지 거절하지 않으면 빛을 향한 갈망이 그 안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자신이 의식적으로 나에게 돌아온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향한 의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이런 마지막 의지의 결정을 사람들에게 욕구한다. 왜냐면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때 자신의 의지를 잘못 향하게 하였었다. 그는 이제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나로부터 내 사랑을 비

추임 받을 수 있기 위해 다시 자신의 옛 자녀의 신분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의지의 변화를 공개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그는 영의 나라에서 창조하며 조성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나와의 연결을 끊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아주 강하게 되어 이 사랑이 그를 충만하게 채우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단지 항상 반복해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현재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무엇이 되어 하는지에 관한 깨달음을 전해줘야 한다. 왜냐면 이런 깨달음이 너희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지식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너희는 너희의 삶을 의식적으로 살게 된다.

위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내 말을 통해 내가 목표하는 것은 너희가 무관심하게 이 땅의 삶을 살지 않게 하는 일이고 목적과 목표를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살지 않게 하는 일이다. 너희가 나 자신을 깨닫게 너희가 이제 의식적으로 나를 추구하게 이를 통해 너희의 마지막 이 땅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너희가 최종적으로 나에게 돌아와 너희가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축복되게 되게 하기 위해 너희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창조란 무엇인가?

B.D. No. 5447

1952년 7월 24일

**창**조란 무엇인가? 착상과 생각은 나에게서 나왔고, 착상과 생각이 형체를 입은 것이다. 내 사랑을 행하려는 내 의지가 이런 형체를 굳게한 것이다. 창조물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직 순수한 영적인 입자들이었고 굳어져 눈에 보이는 물질로 압축되었다. 그러므로 물질은 영적인 힘이 굳어진 것이고, 영적인 힘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다. 그러나 내 착상과 생각은 목적이 없이 무한의 세계를 흘러간 것이 아니었고, 내 사랑과 지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내 착상과 생각은 동시에 한때 내가 창조한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잘못된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었다.

어떤 원인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 내가 창조한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세계의 원인은 나를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로 인한 일어난 결과였다. 나는 내 지혜로 타락한 존재들을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 이런 길이 내 영적인 눈 앞에 생각과 착상으로 떠올랐고, 내 사랑의 의지를 통해 생각과 착상을 실현시켰다. 왜냐면 내 사랑은 힘이고, 내가 원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내 앞에 실체가 된 착상들을 보았고, 착상들이 형체를 입었다. 내가 영적인 존재를 담고 있는 이런 형체들을 살아있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 자체를 창조물로 형성했고, 영적인 존재가 굳어진 입자로서 보이는 실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물질적 창조물은 응축되어 형체가 된 영적인 힘이다. 영적인 힘이 내 힘의 공급을 거부함으로써, 타락하기 전에 영적인 존재의 사명대로 영적인 존재가 활동을 가능하게 했을 영적인 힘이 어떤 활동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굳어진 것이다. 영적인 존재가 의지적으로 나에게 저항했고, 그는 내 힘의 공급이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영적인 입자들이 굳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는 내 의지가 영적인 존재를 묶거나 또는 굳어지게 했고,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의지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길을 가게 했고, 영적인 존재가 타락한 영적인 존재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목표를 가진 창조물 안에서 성장과정을 시작했다.

내 의지와 내 사랑의 힘을 통해 생성된 모든 것들이 영적인 창조물이든 물질적 창조물이든 처음에는 생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실체가 되었다. 왜냐면 한번 지혜와 사랑이 자신 안에서 내 온전함에 합당한 그러므로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는 생각을 하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압축되거나 묶임을 받은 영적인 힘의 상태는 일시적인 상태여야 한다. 왜냐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상태는 자유롭게 창조된 영적인 존재에게 쇠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영적인 존재에게 이전의 자유를 돌려줄 수 있다. 영적인 존재는 자유의지로 힘이 없게 되었고, 축복되기 위해 원래의 상태에 다시 도달해야만 한다.



게다가 나에게서 흘러 나오는 내 힘도 항상 역사한다. 이는 내 힘이 항상 단지 긍정적인 성공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면 내 힘이 항상 긍정적으로 역사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파괴하는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힘은 단지 어떤 저항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저항은 아직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법칙에 따라 내 사랑의 힘을 거부하는 저항이 있는 동안에는 내 힘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동안에는 영적인 존재가 굳어진 상태로 머문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이 유일하게 굳어진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기 때문이고, 내 사랑의 힘이 유일하게 한때 영적인 존재 안에 있었던 생명을 되돌려주고, 영적인 존재가 원래 초기에는 성취할 수 있었던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힘이 굳은 물질을 분해하고 다시 영화시킨다. 내가 밖으로 나타나게 한 생각과 착상이 자신을 증명했고, 모든 창조물의 의미와 목적에 도달했다. 생각과 착상이 한때 자발적으로 나를 떠났지만, 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나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했다.

아멘

혼의 입자.

B.D. No. 6464

1956년 1월 31일

**너**희를 의심스럽게 하는 점에 대해 너희는 설명을 받아야 한다. 왜냐면 자신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모든 것은 확신 있게 진리를 대변할 수 있게 되는 일에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말씀을 통해 설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반면에 영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빛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면, 이런 설명이 번개와 같이 빨리 전해진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생각으로 접근하면 되고 가장 밝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부터 빛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

창조된 모든 것은 영의 힘이 발산된 것이다. 왜냐면 사랑의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형성했고 형체를 부여했고 나 자신 밖으로 나타나게 했다. 이런 존재들은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깨닫고 마찬가지로 나에게 의해 창조된 자신과 같이 온전한 존재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깨달을 수 있었다. 모든 존재들이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나타냈고 다른 존재가 그를 어떤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하는 존재로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 이 존재는 단지 나 자신이 자율적인 존재로 생성한 모든 존재들의 형상이었다.

한번 창조된 존재로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소멸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이런 변화가 죄에 빠지고 한때 이런 존재가 나를 떠나는 일을 통해 일어났다. 그들이 나로부터 멀어질수록 발산되는 빛이 흐려졌고 빛의 힘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빛의 힘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존재는 절대로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존재는 계속 존재한다. 단지 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이 힘이 타락한 존재의 의지를 통해 역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지된 상태는 행하는 일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일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원래 초기에 생명이 되고 제한이 없게 역사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확실하게 굳어지는 일을 의미한다. 이런 정체는 힘의 역사가 제한을 받은 결과이고 이제 무한한 세계 가운데 일할 수 없게 된 셀 수 없게 많은 힘의 중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내 뜻이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다. 이런 세력은 행함이 없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런 일은 내 영원한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들이 그들의 충만한 힘을 잘못 사용했고 자유의지로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거절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전적으로 굳어졌고 내가 이제 굳어진 영적인 존재를 변형시켰다. 나는 굳어진 영적인 존재들을 수많은 입자들로 나누었고 모든 입자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었다.

이로써 창조물이 생성되었고 창조물의 원재료는 한때 나로부터 흘러나온 힘이었고 존재 자신의 의지로 인해 힘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 전적으로 굳어져 내 뜻에 의해 볼 수 있는 물질이 되었다. 그러므로 물질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힘을 발산해서 생성된 존재와 같은 영적인 입자들이다. 그러나 입자들은 마찬가지로 다시 귀환을 위한 변화의 과정을 갈 수 있고 입자들은 계속하여 미세해지고 영으로 변화가 되어 최종적으로 다시 모여져 한때 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처럼 자유롭고 빛과 힘이 충만한 원래의 영적인 존재와 같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일이 내가 모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도달하도록 인도하는 목표이다.

내 사랑의 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은 영원한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의 굳은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나는 계속하여 창조물들을 생성시켜 반발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자유의지를 빼앗고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들의 나를 향한 반발심에 상응하게 의무의 법칙 아래 해야 할 일을 정해주었다. 그럴지라도 저항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힘은 계속하여 효력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의무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은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남아 있는 성공은 아니고 그 일은 단지 영적인 존재들이 일하게 하는 목적을 성취시킬 때까지 가치가 있다. 이로써 그들이 항상 무한의 세계로 흘러가는 힘을 활용하게 한다. 왜냐면 내 힘은 자신을 선물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영화된 상태에서 비로소 이 힘을 말할 수 없게 축복된 빛의 비추임으로 느끼게 되고 이 힘이 세상의 어떤 일과 비유할 수 없거나 또는 이해하게 해줄 수 없는 일을 행하도록 이끈다.

아멘

물질과 영. 영적인 입자로서 영적인 존재와 한 영으로써 독립적인 영적인 존재

B.D. No. 2494

1942년 10월 4일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세상의 물질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이성의 생각하는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모든 볼 수 있는 것들은 물질이다. 다시 말해 형태로 굳어진 성분들이다. 이 성분은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영적인 성분이었기 때문에, 압축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볼 수 있는 성분이 된 것이다. 영적인 성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생각한 특정한 형태를 생각해둔 대로 형태화 된 것이다.

이런 형태는 다시 수없이 많은 입자들이 연합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각각의 입자들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 분해될 수 있는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모

든 형체는 분해될 수 있다. 물질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은 단지 높게 성장해야 할, 그러므로 영원히 이러한 형체 안에서 머물지 않는, 영적인 입자들의 형체이기 때문이다. 물질 자체도 영적인 입자이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굳어진 영적인 능력이지만, 그러나 항상 지속되는 분해와 부서지는 일을 통해, 다시 새로운 형체가 되면서, 끝없이 긴 기간 후에, 자신이 이런 형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볼 수 있는 것들은 아직 성장단계의 초기에 있는 영적인 힘이다. 반면에 이미 성장한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볼 수 있는 형체 안에서 거할 수 있기 위해 볼 수 있는 형체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모든 형체 안에 어떠한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나 연합이 되어, 능력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같은 입자와 연합이 되기를 갈망하는 영적인 입자들이 살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입자들이 완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이 분해된다면, 즉 한 형체가 파괴된다면, 자유롭게 된 영적인 입자들이 똑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추구하여 새로운 살아 있는 형체를 이루기 위해 하나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자연 가운데 항상 지속되는 생성되고 다시 분해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이 과정이 자연 가운데 지속으로 태어나고, 죽는 일이 일어나게 한다.

영적인 입자들이, 어떤 면에서 영적인 입자들 각각이, 어떤 면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입자들이 모여, 모든 창조물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합당하게 영적인 입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형체의 크기와 종류가 달라진다. 이러한 영적인 입자들을 자신 안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물질이다. 그러나 물질 자체는 이러한 성장단계의 초기에 있는,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이미 성장한 영적인 존재들을 단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신의 성장과정을 시작하는 영적인 존재로 여겨야만 한다. 볼 수 있는 모든 것 안에 거하는 영적인 입자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파괴되는 일은, 즉 형체가 죽게 되거나 분해되는 일은, 즉 물질이 헛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물질을 통해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성장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멘

물질과 영. 보이는 창조물과 보이지 않는 창조물.

B.D. No. 2495

1942년 10월 4일

**영**과 물질은 영적인 입자는 연합이 되고, 반면에 물질은 분해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반대이다. 영은 형체를 벗어나지만 물질은 사라진다. 다시 말해 물질의 입자들이 흩어져 영의 나라에 분배가 된다. 그러므로 물질은 세상의 모든 길을 갔다. 왜냐하면 물질은 자체에 성분이 없고, 물질 안의 영적인 입자가 물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의지는 이런 영적인 입자들로부터 항상 또 다시 새로운 창조물을, 물질의 세계를 생성시킬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볼 수 있는 창조물은 존재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물 안의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의 성장과정을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창조물도 있다. 다시 말해 그런 창조물 안의 영적인 존재가 굳은 걸형체가 필요하지 않고, 그러므로 더 이상 물질에 묶여 있지 않다. 이런 창조물은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 구조이고 따라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성숙도를 가진 존재 안에 거한다. 이 창조물은 물질 세계의 창조물과 다르고, 이 땅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를 붙잡을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창조물은 보이는 세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창조물들로부터 이 땅과 이 땅의 주민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고, 물질 자체를 극복하고, 물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도달해야만 하는 상태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영의 나라에서 온 것은 항상 자신을 물질로부터 분리시키라고 가르쳐줄 것이다. 다시 말해 성숙한 영과 연합을 추구하고, 물질을 무가치한 것으로 경멸하라고 가르쳐줄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물질을 위해 추구하는 일이 사람이 영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고, 그러므로 또한 보이지 않는 세상에 거할 수 없게 만든다. 물질 세계는 싸우는 세계이고 영의 세계는 평화의 세계이다. 물질은 아직 어떤 성장도 이루지 못한,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을 시작하는, 다시 말해 높이 성장하기 위해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곁형체가 필요한 동안에, 곁형체가 되는 과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물질은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된 힘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이 힘을, 형체를 통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 형체가 되게 한 것이다.

아멘

물질의 기원. 물질은 무엇인가?

B.D. No. 4489

1948년 11월 18일

**물** 질의 입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즉시 모든 물질이 분해되는, 즉 어떤 의미에서 응집력을 잃게 되는 법이 있다. 그러면 물질 자체가 분해되고 나머지 구성 원소는 단지 다른 물질로 새롭게 형성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땅의 물질적인 창조물이 존재하는 우주에서 이런 물질이 해체되는 과정이 항상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된다. 즉 물질이 분해된 물질을 사용하여 항상 또 다시 결합한다.

인간은 실제로 자체가 물질이고 물질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는 것의 기원과 원래 구성 원소를 확정할 수는 없다. 사람은 단지 계속되는 변화되고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물이 출현하는 일을 보지만, 그의 영이 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는 무엇이 근원인지를 알지 못한다. 물질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고 영원으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다. 물질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존재한다. 그러나 물질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다. 즉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이다.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형체가 된 하나님의 발산이고, 이런 역사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머문다.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힘이고,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굳어진다. 그러므로 이 힘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지가 하나님을 떠나면, 단지 의지가 묶임을 받는다.

물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문 즉 하나님의 근처에 머문 하나님의 힘의 발산인 영적인 존재는 빛의 창조물들이 된다. 즉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자극을 받아 가장 영광스럽지만, 항상 끊임없이 변할 수 있고, 이 가운데 불멸하고 황홀하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머물게 되고, 마찬가지로 창조적 활동을 위해 하나님의 힘의 발산을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서로 다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의지를 내면에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형체가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힘의 효력은 감소하고, 물질에 생명이 없게 보이고, 죽음과 무기력의 상태가 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중단 없는 활동을 의미하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다.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무감각하다면, 영적인 존재는 무기력한 상태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이전에 하나님 가까이에서 자유한 상태를 미리 자유로운 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 땅의 창조물을 거치는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인간으로서 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무기력한 상태를 고통으로 느낀다. 이런 고통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저항을 포기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그가 최소한의 활동을 시작하는 일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활동은 곧 굳은 물질에 변화를 초래한다.

(1948년 11월 19일) 창조의 작품이 더 많은 생명을 나타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영적인 존재가 마침내 다시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가 되기까지 자신의 원래의 성품을 더 많이 갖게 되어 존재가 다시 힘과 빛이 된다. 그러므로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응축되어 마침내 굳어진다. 물질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다. 왜냐면 물질이 그의 원래의 상태로 다시 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는다. 왜냐면 힘은 하나님의 발산이고, 실제 힘의 곁형체가 변화가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전적으로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발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이 변화하는 일도 법에 따른다. 물질은 영원히 나타나는 형상대로 머물 수 없다. 왜냐면 물질이 항상 힘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접촉하고, 이런 역사가 물질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힘이 물질에 역사하는 정도는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의 저항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한 저항조차도 언젠가 꺾인다. 그러므로 때때로 창조물 가운데 모든 물질을 파괴가 되어 다시 다른 형태로 생성될 수 있게 하는 강력하게 분해되는 일이 일어난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존재가 최고로 활동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활동하는 일이 유일하게 축복을 주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아멘

물질의 기원. 전자.

B.D. No. 5722

1953년 7월 13일

**영**의 열매는 깨달을 수 있고, 이성의 열매와 이성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 영이 너희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이성의 지식의 빈틈을 채워준다. 영의 역사가 없이 얻은 이성의 지식은 의심스러운 진리를 가진 단편적인 지식으로 머문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일보다 의심없이 영적인 지식의 결과를 의존하는 일이 더 낫다. 왜냐면 순수한 진리는 단지 영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은 자신을 아주 작은 소리로 표현해서,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인 귀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이로써 어떤 방해하는 소리가 세밀한 영의 음성을 파묻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영을 통해 자신을 계시고, 가장 깊은 지혜를 전해 준다.

너희가 창조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생성되었고 그러므로 창조물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응축되어 형성이 된 힘이다. 모든 창조물에는 창조물을 생성되게 한 근본 입자가 있어야만 한다. 사람이 자신의 창의력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내기 원하면, 기본 재료가 있어야만 하거나 또는 그가 스스로 존재하는 다른 재료로부터 기본 재료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힘을 발산하고, 발산한 힘으로부터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 생성되게 하는 점에서 기본 물질의 창조주이셨고 창조주이다. 힘은 어떤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세상적인 붙잡을 수 있는 입자가 된다. 하나님은 힘의 원천으로서 끊임없이 힘을 생성하고, 힘을 살아 있는 존재에게 보낸다. 왜냐면 힘은 죽을 수가 없고 항상 생명을 생성되게 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원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의 효력이 나타나고, 죽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죽은 자의 고요함을 흔들어 깨워, 그가 마찬가지로 일하도록 이끈다. 힘은 살아 있게 하는 수단이고, 이제 역사하여 지금

까지 죽은 존재를 흔들어 서서히 생명으로 깨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힘의 모든 표현은 사랑의 흐름이고, 이 흐름을 하나님을 떠나 죽은 존재들이 다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흘러보내야 한다. 이러 타락한 존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힘에 받지 못하고, 그들 자신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의 영역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생명이 없게 되었고 이로써 그들 자신이 굳어지고, 생명을 의미하는 모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굳어진 존재들이 힘의 발산을 받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에 의해 무한의 세계를 발산되는 사랑의 힘은 무한한 불의 바다와 비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불씨가 맹렬한 속도로 돌고 있고, 굳어진 존재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 둘러싸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발산에 전적으로 저항하고, 힘이 이제 저항에 부딪히는 곳에서, 힘은 자신의 효력을 잃게 된다. 즉 힘 자신이 강박한 존재를 둘러싸고 있지만 존재의 의지와는 반대로 존재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지 않고, 존재가 포로로 머물게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을 포기하도록 움직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형체로 압축되었고, 형체 안에 이제 하나님께 저항하는 영적인 존재가 거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물질로서 볼 수 있는 창조물들이 생성되었다. 언젠가 존재의 저항을 꺾고 이를 통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발산을 받아드려, 다시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려는 의도로 모든 물질이 존재에게 사슬이 되도록 물질이 생성된 일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이 형체로 응축되는 일은 힘이 저항을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므로 물질의 출현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대항한 영적인 존재의 저항의 결과였고, 그렇지 않으면 이 힘이 자신이 전혀 저항을 받지 않는 영의 나라에서 엄청난 빛의 발산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사랑의 힘은 저항에 의해 그의 효력이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의 힘은 자신을 방해하게 했고, 일정 기간 동안 안식의 상태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 힘은 사랑이고, 굳어진 존재를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쉬지 않고 역사하는 힘이 정지가 되고, 어떤 볼 수 있는 것으로 형성이 되고, 이 힘이 굳어진 영적인 존재를 자신 안으로 감싸고 이로써 동시에 전혀 사랑이 없고, 존재가 저항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는 자의 영향으로부터 존재를 보호한다.

빛의 힘이 존재를 고립시키고, 부정적인 세력의 영향을 벗어나게 하는 일은 빛의 힘의 첫 번째의 역사이다. 긍정적인 힘은 이제 조용하게 처신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힘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의 저항이 드러나게 줄어들게 하고, 끝없이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존재가 생명을 주는 힘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제 죽은 것처럼 보이는 물질에게서 연약한 생명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사랑의 힘은 점점 더 효력을 발휘하고, 이런 일이 점점 더 깨어나는 생명을 통해 증명되고, 이런 일은 묵임을 받은 존재의 구원이 시작되는 일을 의미하고, 묵임을 받은 존재가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위로 성장하는 일을 의미한다.

(1953년 7월 13일) 창조물 안에서 높이 성장하는 일은 굳어진 영적인 존재 안에서 활동하려는 의지가 깨어나는 일로 일어난다. 그러면 존재를 묶고 있는 힘이 느슨해지는 일이 일어난다. 즉 압력이 완화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는 물질이 분해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인 존재를 둘러싼 형체로부터 영적인 존재가 서서히 자유롭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저항이 어느 정도 꺾이고, 영적인 존재가 아주 제한적인 정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의 발산을

받아들이고, 굳어진 영적인 존재가 서서히 깨어나게 된다. 영적인 존재가 마침내 걸형체를 파괴시키거나 또는 존재를 새로운 형체 안으로 다시 묶기 위해 존재를 감싼 사랑의 힘이 존재를 풀어줄 때까지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어느 정도의 성숙에 이르러 영적인 존재가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묶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질은 묶여 굳어진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묶임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통해 일어난다. 이 힘이 물러나면, 물질은 해체되고, 분해되고, 그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된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이제 새로운 물질적인 걸형체를 입게 된다. 인간의 눈은 절대로 굳어진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는 무기력해져서 활동하지 않는 영적인 입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무기력한 입자들을 모아 물질로 형성하고, 볼 수 있게 만든다.

하나님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세계를, 묶임을 받은 존재들의 세계를 창조했고,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걸로 볼 수 있는 세계를 창조했다. 영적인 존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도움으로 서서히 위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항상 영적인 존재를 감싸고 있는 물질의 강한 정도를 정한다. 묶임을 받은 존재는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저항하는 가운데 머무는 영적인 존재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를 묶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다.

그러므로 물질 세계는 실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말은 옳은 말이다. 왜냐면 물질 세계는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의 말을 듣는 영적인 존재에게 거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은 죽은 존재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 없이 흘러 나오는 사랑의 힘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의 묶임이 완화되거나 최종적으로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전에 영적인 존재가 먼저 생명을 갈망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빛의 불씨들이 맴돌고 있고, 그들의 엄청난 힘으로 무기력하게 된 활동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떼어 놓고 이로써 다시 무수히 많은 개별적인 입자들을 포획하고 감싼다. 이런 빛의 불씨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근본 입자인 전자로 알려져 있다. 너희가 영적인 경로를 통해 설명을 받지 못하면, 너희는 전자의 기원과 영적인 과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고, 또한 멈추지 않고 역사하는 힘을 너희에게 증명하고, 너희는 이런 힘의 효력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절대로 빛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아멘

전자(電子)

B.D. No. 4067a

1947년 6월 23일

**자**연에서 성장하는 세력들은 영원한 창조주의 힘의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길 수 있다. 이 힘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이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힘이 무한으로 향하고 있고, 이 힘은 어떻게 든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힘을 힘으로 깨



달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힘은 사물을 생성시켜야만 한다. 이런 힘의 활동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을 살아 있게 하고, 그들이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하는, 그들이 원래 가졌던 상태에 다시 도달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이 끊임없는 흘러나오는 일은 또한 항상 계속해서 창조물이 형성되게 해야만 하고, 또한 이런 창조물들 안에서 끊임없는 활동을 깨달을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이런 활동은 어떤 의미에서 단지 눈으로 볼 수 있고, 생물체의 범주에 속하는 창조물 안에 육신을 입은 영적인 존재의 생명이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깨달을 수 없는 아주 작고 작은 생명체도 있다. 인간의 시력을 특별하게 강하게 할지라도 추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생명체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사람에게 물질로 보이는 모든 창조물의 핵심을 형성한다. 그들은 기본 입자를 형성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의 첫 번째 형체이고, 하나님의 발산이 굳어진 것이고, 셀 수 없게 많은 다양성을 가진 생명력이 있는 형상이다. 이런 형상들이 연합이 되어 물질로 보이게 되지만, 아직 연합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를 구하고, 서로에게 달려들기 때문이다. 이런 작은 생명체는 상상할 수 없게 강하고, 묶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평하는 영적인 입자이고, 그들이 서로를 찾아 이제 항상 점점 더 굳어질 때까지 어떤 형체도 취할 수 없다.

(1947년 6월 23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그 자체로 나뉠 수 없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힘의 결과가 개별적인 창조물들이고, 각각의 창조물들은 또한 그 자체가 가장 작은 입자들로 분해한다면, 분해가 되는, 셀 수 없이 많은 본질적인 입자들로 구성이 된다. 이런 가장 작은 입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이 없이 도움에 의존하는 묶임을 받지 않았다. 묶이게 되는 일은 끝없이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입자들의 영화가 이뤄진다면 일어난다. 즉 입자들이 영적인 존재를 모시는 존재가 되도록 정함을 받는다면 일어난다. 그들이 정함을 받는 일은 그들이 연합하여 비록 가장 작은 정도라 할지라도 형체를 이룬 후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이 형체로 압축이 되고, 이런 일이 물질의 창조이다. 이런 물질의 창조를 위해, 실제 인간의 눈에 보이게 되기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형체는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해야 할 영적인 존재를 모신다. 인간이 연구를 통해 아주 작고도 작은 입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입자는 이미 살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물질로 증명될 수 없다. 이런 전자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적인 존재는 이 땅에서 성장의 과정을 시작하는, 형체 안에 묶여 있는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끝없이 축소된 것에서 위대한 창조의 시작을 발견하는 일보다 더 강력한 발견은 없다.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창조물을 무한하게 작은 입자들로 나누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창조물을 무한하게 작은 입자들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보다 더 강력한 발견은 없다. 그러나 사람은 단지 이성을 통한 생각으로 그들이 절대로 완전히 다스릴 수 없게 될 영역으로 잘못 들어선다. 이 땅이 아직 존재하는 동안에, 이런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설명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 지식과는 거리가 먼 영역일지라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도 숨이지 않기 때문이다.

(1947년 6월 24일) 천지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진리와 영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을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은 인간이 이 땅의 활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즉 그의 이 땅의 일을 하나님의 축복 아래 두고, 이로써 하나님에 속한다는 느낌을 증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고, 그의 질문은 항상 답변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인간이 자신의 이 땅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지식을 향한 갈증을 풀기를 원한다면, 즉 영적인 지식에는 관심이 없다면, 답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순전히 이성적으로 그것을 헤아리려고 노력한다면, 그가 진리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 지를 그 자신에게 맡겨 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항상 한계가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숨겨둔 것들의 탐구에서 무시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문은 언제든지 해결해준다. 설명을 구하는 사람의 혼이 더 성숙할수록,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것이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원칙이, 사랑이, 영원한 신성을 향해, 원초적인 힘을 향해 처신하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도 똑같이 역사한다. 즉 하나님과 사랑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사랑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다.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보완하고, 모든 법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운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일은 무질서를 만들고, 동시에 최고의 온전함과 최고의 질서 안에 계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체 창조물의 구성은 최고 질서와 온전함으로 이뤄졌고, 능가할 수 없는 지혜가 이런 질서를 세웠고, 가장 깊은 사랑이 이런 질서의 기초였다. 결과적으로 존재가 성장과정을 시작한다면, 존재는 이런 질서와 법칙에 따라 온전하게 되는 그의 목표에 도달해야만 했고, 영원한 사랑의 힘의 흐름이 가장 작은 입자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는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존재가 이 땅의 과정을 가는 목적이다.

그러나 존재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자신과 접촉할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발산인, 그러므로 어떤 신적인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과 결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접촉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에게 부족한 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존재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로 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를 받아드리기에 알맞은 무언가가 창조돼야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힘을 우주로 발산하고, 이 힘은 모든 무한에까지 도달한다. 그러나 아주 작은 단위로 도달한다. 왜냐면 이런 작은 단위로 이미 무한의 전체를 그의 힘으로 채우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이 생성되었고, 우주의 운행이 시작되었다. 왜냐면 하나님의 힘 자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생명은 가장 작은 힘의 불씨와 연합이 되어 증가되고, 이런 생명은 죽은 존재와 힘이 없는 존재가 자신을 붙잡게 한다면, 이런 존재들이 행하는 과정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붙잡는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죽은 존재를 감싸고, 생명이 있는 존재가 죽은 존재를 포로로 잡는다. 그러나 미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포로로 잡는다. 왜냐면 하나님의 힘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작은 힘의 불씨가 우주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고, 아직 자유로운 가운데 있고, 다시 말해 계속하여 움직이는 동안에는, 비록 이런 작은 힘의 불씨가 물질의 시작이지만, 힘의 불씨인 전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물질의 원래의 성분일지라도, 물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이 언젠가 굳어지게 되면, 즉 성숙하지 못한 존재를 통해 이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굳어지는 상태가 발생하여 그들은 비로소 물질이 된다. 이를 통해 존재가 이제 묶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묶임을 받은 존재의 저항이 무기력하게 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힘이 발산의 효력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힘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고, 존재가 파문을 받는 시간이 끝나면, 굳은 물질 안에서 작은 생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실제 영적인 입자이다. 그러나 무한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장하는 인간 혼의 입자가 아니다. 반면에 묶임을 받은 순수하지 못한 입자는 인간의 혼의 입자로 여겨야만 한다. 왜냐면 이런 존재는 이제 자신의 성장과정을 시작하고, 인간의 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순수한 힘이고, 그러므로 파괴될 수 없고, 전자는 어떤 의미에서 영의 나라에서 이 땅의 나라로 넘어가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즉 이 땅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형체를 입는 하나님의 발산이고, 또한 이해할 수 없게 가장 작은 크기의 형체라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한 신적인 존재가 사랑과 긍휼로 온전하지 못한 존재와 연결을 이룬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완전히 연약해져 높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존재가 전적으로 연약해졌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를 붙잡아, 그를 묶고, 하나님의 힘을 거부하는 결과와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존재가 다시 하나님 가까이에 가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바꾸게 하고, 하나님의 힘을 다시 갈망하게 한다.

아멘

굳어진 입자들을 사랑의 힘으로 감싸는 일.

B.D. No. 7070

1958년 3월 21일

 든 생명은 나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존재가 내 피조물로서 내 사랑과 생명의 힘을 받기를 거부했을 때 비로소 죽음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그들은 창조하고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생명을 보여주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전에는 끊임없이 활동하던 존재가 경직되었고 죽음의 상태에 빠져 움직일 수 없고 힘이 없게 되었다. 존재는 이제 끊임없는 사

랑의 발산해주는 일을 통해 천천히 생명이 깨어날 수 있게 될 때까지 굳어진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생명은 단지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된 가운데 존재할 수 있고 피조물은 단지 끊임 없이 나로부터 사랑과 생명의 흐름을 받고 내 사랑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으면, 존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 도달한 경직된 존재는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잃는다. 그러므로 존재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내 사랑의 흐름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에 의해 전적으로 온전하게 생성된 존재가 더 이상 자신의 원래 초기의 사명을 성취시킬 가능성이 없게 되었고 그는 스스로 자유의지로 생명이 살아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의 상태는 내 도움이 없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가 내 도움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지극히 큰 사랑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 왜냐면 내 온전한 성품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를 영원히 그의 고통 가운데 놔둘 수 없기 때문이고 나에 의해 발산된 힘이 언젠가 다시 역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내 도움은 이제 완전히 굳어진 영적인 입자들을 붙잡아 가벼운 사랑의 걸형체로 감싸는 일이다. 이런 사랑으로 감싸는 일이 초기에는 이런 입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러나 입자를 점점 더 굳게 감싸서 이로 인한 부드러운 압력으로 굳어진 영이 자극을 받게 하고 그가 자신을 감싸고 있는 걸형체를 분해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한다. 존재는 자신이 느끼는 한 권세에 대항하고 이로써 이런 입자들이 먼저 서로 분리되게 되고 굳어진 영적인 존재들이 모인 상태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제 이렇게 작아진 모임은 다시 형체로 감싸져야만 하고 이런 과정이 항상 또 다시 반복된다. 이로써 굳어진 영적인 존재들의 저항이 감소하여 서서히 다시 활동하기 시작할 정도의 힘을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 항상 또 다시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의 영역으로 옮겨진다.

굳어진 영적인 존재의 행하려는 의지가 영적인 존재를 다시 움직이게 할 때까지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위로 성장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왜냐면 이제 항상 더 많이 내 사랑의 힘이 그에게 공급될 수 있고 이로써 이제 모든 곳에서 생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비록 내 의지에 의한 이런 성장이 단지 내 의지에 의해 가능할지라도 죽음의 파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의 과제인 저항을 포기하고 저항을 줄이는 일을 하도록 영적인 존재는 강요당하지 않고 내 사랑의 힘에 의해 영적인 존재 자신이 이제 굴복하는 일을 이룬다. 죽은 존재는 단지 사랑을 통해 생명으로 깨어날 수 있다. 그러나 죽은 존재는 자유롭게 사랑에게 자신을 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일은 법칙을 따라 일어난다. 즉 영적인 존재가 특정한 의무 단계에 처하고 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럴지라도 존재는 저항을 줄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죽음에서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아주 서로 다른 시간이 필요하다.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굳어진 상태 가운데 끝없이 오랜 기간 머물 수 있고 그는 사랑의 비추임을 따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는 마찬가지로 자신이 행하려고 하기 까지 어떤 일을 행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나 굳어진 영적인 존재가 언젠가 활동해야만 하는 일은 원래의

법이다. 왜냐면 나에 의해 한때 발산된 힘은 힘으로 머물고 돌이킬 수 없게 언젠가 다시 나에게 향해야만 하는 일이 원래의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또한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줘야만 한다. 왜냐면 그의 무기력과 생명이 없는 그의 상태에서 존재가 영원히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변함없이 타락한 존재에게 향하고 사랑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럴지라도 사랑은 지혜 안에서 역사해야만 한다. 왜냐면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고 존재가 한번 빛과 힘과 자유를 가진 생명으로 돌아온 후에는 다시는 죽음의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지혜가 구원 계획을 세웠고 내 사랑이 이제 구원 계획을 실행한다. 구원 계획은 한때 나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가 말할 수 없게 축복 된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아멘

영은 굳어진 능력이다.

B.D. No. 7802

1961년 1월 20일

**너**희를 내 학생으로 여기고 내 가르침을 영접하라. 세상의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내 뜻대로 인도 받고 견고한다. 내 의지가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그들은 진실로 소멸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내 창조물들로 발산되게 한 내 모든 생각은 내 의지에 의해 견고하게 되어 창조물들이 창조 된 존재로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굳어진 의지가 이제 서로 다른 창조물들로 표현되었다. 또는 모든 창조의 작품은 내가 발산되게 한 능력이고 내 뜻에 의해 굳어진 능력이다. 이런 능력에게 내 사랑과 지혜가 정한 대로 형체를 부여하는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 이런 창조의 역사는 내 아주 큰 사랑과 능가할 수 없는 지혜와 끝없는 권세를 나타냈다.

내가 생각으로 내 밖으로 생성되게 한 존재는 내 뜻에 의해 형체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의 작품은 내 뜻에 의해 굳어진 생각이다. 내가 원하였을 때 이런 형체화 된 생각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창조의 작품들을 내가 내 밖으로 생성시킨 존재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생성되게 한 모든 영적인 창조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측량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했다. 이를 너희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줄 수 없다. 왜냐면 이 창조물들은 창조 된 존재들에게 내 권세와 영광을 증명하고 그들을 넘치게 행복하게 하는 영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한번 생성이 된 것은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

그러나 존재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계속 존재했다. 왜냐면 그들은 소멸될 수 없고 소멸될 수 없게 남을 내 영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도 내 뜻에 의해 굳어진 영적인 능력이다. 그럴지라도 이 능력은 단지 내 의지가 물러나 물질이 분해될 때까지만 유지 된다.

다시 말해 영의 능력이 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볼 수 없게 되고 내 능력이 다시 목적에 합당하게 다시 형성시킨다. 이런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면 내 지혜가 깨달은 것을 내 사랑이 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땅에 물질적인 상태가 분해되면, 실제로 영적인

능력은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은 내 능력이 물질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을 때 스스로 사라지는 반면, 이 능력은 소멸될 수 없다.

내 의지는 항상 또 다시 물질로부터 물러날 것이다. 왜냐면 물질에게 항상 제한된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물질은 소멸돼야만 한다. 왜냐면 영원한 계획에 따라 물질 안에서 성장해야 할 영적인 존재들을 항상 또 다시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창조물이 분해되는 일에 비록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물질적인 창조물을 분해했는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때때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물질을 분해하는 일에 참여한다.

왜냐면 사람에 의해 행해진 물질을 분해하는 일도 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뜻에 합당하지 않은 신적인 질서를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악한 동기에 근거할 수 있다. 너희는 내 의지가 물질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물질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이를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이 내 의지에 저항하고 물질을 파괴하려고 하면, 내가 사람들의 의지를 막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실제 내 창조의 작품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제한된 영역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의 잘못된 의지도 내 구원계획을 정할 것이다. 내가 영원으로부터 이를 알고 이런 의지를 내 구원계획에 반영했다.

물질적인 창조물들을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스스로 파괴하는 개입을 하게 자극한다. 그들의 동기에 따라 선한 효과나 또는 악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왜냐면 내 지혜가 물질을 분해하는 일이 줄 수 있는 축복을 깨닫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 그들의 행하는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불행을 하게 하는 또는 아직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불행한 효과를 주는 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들이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나 자신이 영원한 법칙에 따라 사랑과 지혜 가운데 묶고 풀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의지가 정하는 대로 나에게 모든 권세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아멘

물질은 압축된 영적인 능력이다.

B.D. No. 8961

1965년 4월 10일

**내** 모든 창조물들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다. 한때 자신의 사역을 거절한 원래의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볼 수 없는 모든 창조물이 되어 형태로 변화를 받은 것이다. 이들은 걸형체로써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섬기거나 또는 스스로 모든 종류의 창조물 안에서 아직 묶임을 받고 있다.

내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창조물들을 생성한 것을 너희는 알아야만 한다. 그러나 오직 내 의지를 통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둔 영광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적인 창조물들을 생성하고 생성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들은 너희에게 단지 불씨로만 보이는 가장 멀리 떨어진 별들은 내 끝없는 사랑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창조한 것이다. 별들의 종류는 아주 많아서 너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의 모든 성장 정도에 알맞은 별이 이들을 수용하고 있다. 너희에게 볼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창조물이다. 내 지속적인 조성하려는 의지가 나로부터 생성시킨 것으로서 너희가 단지 너희 스스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으면, 볼 수 있을 것이다.

타락한 영들의 숫자는 너희에게는 헤아릴 수 없어서 이들을 위해서는 끝 없이 많은 학교가 필요하다. 세상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너희는 단지 지구의 창조물들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이런 창조물들은 그들의 타락한 정도인 나로부터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떨어진 정도에 따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굳은 입자로 된 것들이거나 또는 나와서 거리를 이미 줄였지만 아직 최고의 빛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 영의 존재들이다.

이 모든 존재들은 그러나 내 대적자가 타락할 당시에 그를 따랐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이들이 다시 자기를 떠나서 가장 깊은 곳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입자들을 나는 아주 쉬운 삶의 조건을 가진 창조물들에 사용했다. 가장 굳은 입자들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 이런 입자들은 이 지구와 같은 불쌍하고 초라한 창조물에 사용했다.

그렇지라도 이 지구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권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다. 내 다양성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성장 과정 중에서 만약에 이 땅에서 성공해 전적으로 영으로 되어 너희를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게 만들어줄, 영광스러운 영의 창조물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빛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항상 또 다시 새로운 창조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타락하지 않은 영적인 존재들로 내가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의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고 모든 물질들은 압축된 영의 능력으로서 형태로 압축이 된 것이다. 이런 일은 내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일어난다. 나 자신이 그 안에 육신을 입기 위해 순수한 빛의 영에게 걸형체를 창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형체는 한 때 타락한 혼으로 구성될 수가 영원히 절대로 없다.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가는 타락하지 않은 영들은 깊은 곳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육신을 필요로 한다. 육신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저항을 꺾기가 쉽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성장에 이르게 된다. 그는 확실하게 이 땅의 삶의 목표에 도달한다. 나는 모든 각각의 혼들의 상태를 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혼들을 내 대적자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다. 즉 원래의 영 루시퍼로부터 혼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서 그는 단지 집 나간 탕자로서 남게 된다. 그는 나에게 다시 복종할 것이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를 다시 영접한다.

아멘

굳은 형체 안에서 고통이 충만한 상태.

B.D. No. 2852

1943년 8월 16일

영적인 존재가 굳은 형체 안에서 견뎌야만 하는 상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이 상태는 또한 끝없이 오래 기간 지속이 된다. 이는 묶임을 받은 상태이고, 어떤 존재도 의지를 드러 처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그의 성장과정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이런 상태는 영적인 존재가 반항할 수 없는 의무의 상태이다. 영적인 존재는 원래 자유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강제를 고통으로 느끼고, 이 전에는 방해받지 않고, 원하고 행할 수 있었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들을 생성한 분의 의지를 통해 영적인 존재가 힘을 받는 존재였고, 그가 이 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가 이 힘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의지로 창조물에게 다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창조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처럼 영의 나라로 흘러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하는 영적인 창조물이다. 하나님을 향해 추구하는 존재들은 이런 흐름의 영향을 다시 느낀다.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동시에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의지를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굳은 형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겉형체 안으로 묶임을 받는다. 왜냐면 이런 겉형체는 다시 겉형체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가 모든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더 굳은 영적인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겉형체는 이제 원래 자유로웠던 영적인 존재를 점점 더 단단히 감싸고, 말할 수 없게 압박하고, 영적인 존재로부터 모든 힘을 빼앗는다. 영적인 존재가 이런 압박에 대항하여 아무리 반항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는 이런 압박에 무기력하게 굴복을 당한다. 영적인 존재는 이런 고통 가운데 이 땅에서 성장의 과정을 시작한다. 이 전에 영적인 존재는 이 땅에서 또는 이 땅과 같은 곳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거쳤거나 또는 그가 자유롭게 자신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영적인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도록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면서, 영의 나라에서 자신을 해충으로 입증했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서 자유의지를 빼앗아야만 한다. 왜냐면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대항하는 모든 싸움은 죄이고, 죄가 이제 그에게 자유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는 오랜 시간 동안 묶이게 된다. 이로써 존재가 다시 서서히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단지 고통의 결과로 이뤄진다. 존재가 이런 고통으로부터 변화된 의지를 통해, 영적인 존재가 섬길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즉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저항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 단지 아주 큰 고통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겉형체를 또한 은혜의 수단으로 여겨야만 한다. 왜냐면 비록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겉형체가 구원을 위한, 높게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



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를 끊임없는 변화시켜,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을 허용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양육하기 위해, 모든 시대에 특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단계에서는 자유의지가 영적인 존재에게 다시 주어지고, 인간은 이제 자유의지를 모든 곁형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또한 곁형체와 연관된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아멘

로마서 8 장 19 절에서 22 절에 나오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의 고통.

B.D. No. 6988  
1957년 12월 8일

**너**희는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시작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영원히 더 이상 소멸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성품을 바꿀 수 있다. 너희는 이 성품을 바꾸는 일을 행했다. 이로써 한 동안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빼앗겼다. 그러나 너희는 실제 계속 존재하였지만 너희 존재를 더 이상 의식할 수 없었다.

그렇지라도 이런 상태는 축복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는 축복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닌 고통스러운 상태였다. 왜냐면 한때 자유롭게 창조된 영적인 존재는 이런 묶임의 상태를 고통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원히 계속해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존재를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축복된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능력과 빛 가운데 너희의 기쁨을 위해 역사할 수 있어야 한다. 존재가 내 뜻대로 살고 일하는 것이 존재가 충분한 빛과 능력을 가지고 나와 같이 축복된 것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희의 목표이고 나에 의해 한때 창조된 모든 존재의 목표이다.

그러나 나로부터 빛과 자유를 받고 발산된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자신의 의식하는 의식을 잃었다. 그들은 자유와 빛과 능력을 버렸고 스스로 끔찍한 운명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을 멸망시킬 수 없고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어떤 존재도 축복된 삶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단지 나 자신에 의해서만 존재로 인식되었고 동시에 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묶임을 받은 존재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새로운 파문을 받을 위험이 너희 사람에게 어떠한 느낌도 주지 못해서는 안 된다. 비록 너희에게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이 없지만 너희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언젠가 생명에 도달하면,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라진 것으로 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들은 실제 자신이 굳어진 상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존재는 분해되지 않았다. 존재는 느낌이 없지 않다. 존재는 비록 아주 작은 입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그러므로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인 모든 창조물은 빛의 나라와 빛의 나라의 거주자와는 반대로 구속을 받지 못한 가운데 축복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고통당하고 이런 그의 고통 속에 구속을 받기를 간절히 구한다. 영적인 존재들이 느끼는 고통을 너희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면 걸형체로서 너희 혼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의 육체이고 이 육체는 단지 어느 정도의 고통만을 느낄 수 있고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구속받지 못한 혼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과는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그의 걸형체 안에서 느끼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러나 혼이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은 인간의 단계에서 혼의 성품의 변화시켜 그들의 원래의 성품으로 만드는 일을 의식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혼이 절대로 소멸될 수 없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식이 혼이 가장 진지하게 영원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추구하고 축복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따라 일할 수 있기 위해 빛과 능력을 다시 얻기 위한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혼에게 이런 깨달음이 없는 동안에는 사람은 무익하게 이 땅의 삶을 살고 혼은 묶임을 받고 아직 묶임을 받은 상태로 혼은 육체를 떠난다. 그러면 다시 혼이 이 땅에서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고통이 충만한 상태가 다시 나타난다. 혼이 존재할지라도 혼은 죽은 것이다. 혼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마련하지 못했다.

저세상에서 혼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않을지라도 혼은 소멸되지 않고 소멸될 수 없다는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면, 혼은 다시 파문의 상태에 도달할 위험에 빠진다. 단지 이런 깨달음만이 혼이 저세상의 나라에서 이제 생명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혼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혼이 다시 새로운 파문을 받는 운명을 맞이하면, 혼이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을 빼앗기면, 혼이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들로 나누어져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모든 걸형체를 의미하는 창조물을 통과하는 과정을 가야만 하고 다시 끝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하면, 이미 자신을 의식하는 혼에게 끔찍할 것이다.

왜냐면 단지 고통을 통해 영적인 존재들이 정화되어 자신을 다시 의식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젠가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로서 그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제 그의 생명을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 물질의 변형

혼의 입자의 운반자로서의 물질. 창조적 의지. 분해. 다시 모임.

B.D. No. 0831

1939년 3월 27일

**이** 땅의 모든 것은 인간의 영적인 성장에 이바지한다. 이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영이 물질을 살아있게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단지 먼저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하고, 스스로 똑같이 창조하고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그 자체로 실체가 없는 형체는 오직 영적인 입자와 관련하여 너희가 볼 수 있는 것이 된다. 영의 입자가 단지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외적인 형체도 영에서 온 입자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존재할 수 없다. 외형의 끊임없는 변화는 단지 다양한 영적인 입자들이 모여져, 완전하게 모두 한 인간 혼이 형성되게 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이 전체는 자신이 성숙해져야만 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말하자면 영이 교육을 받는 장소이다. 이 교육 장소는 물질로서 다시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인간의 이 땅의 활동과 연관이 있다.

사람의 혼이 무수한 혼의 입자로부터 형성되어야만 한다면, 공기도 또한 영의 입자의 운반자가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공기가 사람이 지속해서 살아있도록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기는 혼의 걸 형체인 육체가 지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공기 중에 있는 영의 입자가 혼과 연합하기 위해 육체에 흡수되어, 이로써 동시에 인간의 혼이 증가한다.

모든 형체 자체는 그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외부로부터의 공급으로 커진다. 그러나 소위 죽은 물질은 가장 다양한 영의 입자들이 모여져 있는, 이로써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인간의 창조적 의지를 통해 증가한다. 그러므로 물질을 합하여 큰 영적인 힘이 역사하게 할 수 있다. 또는 물질을 해체하거나 적게 만들면서 큰 영적인 힘이 역사하게 할 수 있다. 영적인 힘은 이제 다시, 마찬가지로 증가한 힘이 합쳐짐을 통해 다른 걸 형체 안에 거주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은 세상의 의미에서 어떤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물질을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두면, 물질 안의 영적인 입자는 그 형체 안에서 성숙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굳은 형체의 본질. 물질.

B.D. No. 1433

1940년 5월 23일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필수적인 본질을 깨닫는 일은 어떤 지식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소위 죽은 물질만을 보고, 이 물질 안에 거하는 본질적인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물은 본질적인 원소를 포함할 때 비로소 인간

의 눈에 보인다. 따라서 인간에게 물질로 보이는 것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자체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굳은 형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살아 있다. 단지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존재가 아직 가장 낮은 성장정도에 있고, 그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모든 낮은 존재들이 항상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머무는 것처럼 한 존재나 어떤 창조물의 활동이 증가하면, 그들의 더 높은 성숙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겉형체는 생명이 없는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된 존재들이, 그들의 낮은 성장정도로 인해, 행복하게 하는 활동을 하도록 아직 허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을 감싸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활동은 행복한 상태이고, 어느 정도의 성숙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굳은 형체 안에 영적인 존재에게 더 빠르게 섬길 기회가 주어질수록, 이로써 다른 존재에게 유익한 과제가 주어지면, 존재는 자신의 목적을 더 빠르게 달성하고, 이제 굳은 형태를 벗어날 수 있다. 존재의 모든 새로운 형체는 존재에게 다소 완화된 강제 상태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식물과 동물의 성장은 굳은 형체일때 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된다. 왜냐하면 굳은 형체에서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매년 폭력적인 분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즉 자연적으로 또는 인간의 손을 통해 일어난다. 이런 일은 동시에 존재에게 섬기는 기회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선행조건은 인간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에게 저속한 동기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거나 또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창조물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려고 해서 안 된다.

영적인 존재를 그 안에 품고 있는 것들을 자주 변형시키는 일은 존재에게 단지 큰 축복이다. 새로운 형체가 유용한 목적에 부합하면, 존재는 이에 감사하고 환영한다. 형체와 그 안의 영적인 존재가 이제 섬긴다. 이런 섬김이 그에게 새로운 변형을 가져다주고, 이런 식으로 존재의 형체가 점점 더 적게 짐을 지게 되고, 변화는 항상 더 빠르게 이뤄진다.

모든 존재의 이런 성장과정은 인간에게 자주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너무 적은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섬길 목적을 가진 많은 대상들을 생각할 때, 사람이 이제 이 모든 대상이 영적인 생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미 이런 감옥에 갇혀 살았고, 끝 없는 고통과 묶임을 받은 시간을 견뎌야만 했음을 생각할 때, 그는 모든 창조의 작품을 단지 이런 관점에서 관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이 땅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가능한대로 굳은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들이 해방되도록 돕고, 항상 하나님과 그의 이웃 사람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아멘

거친 물질. 형체. 입자.

B.D. No. 1568

1940년 8월 15일

**영**적인 존재가 이 형체 안에서 섬기도록 강요를 받도록 하기 위해 겉형체가 필요할 때까지, 본래의 영적인 입자가 거치른 물질이 되는 일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영적인 존

재가 묶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존재가 곁형체로 둘러싸기는 순간 자신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영적인 존재는 바로 물질로 된 곁형체에 의해 묶인다. 존재가 이제 특정한 시간 내에, 다시 곁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곁형체를 극복해야만 한다.

영적인 입자를 둘러싼 모든 물질의 입자들은 압축된 영적인 존재들이다. 다시 말해 자신 안에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들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창조한 권세로부터 생성되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형체가 되었고,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은 형체 안에 담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영적인 입자이고, 단지 이런 입자들의 영적인 성장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체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와 형체가 된 영적인 존재와 구별을 해야만 한다.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이미 다양한 형체 안으로 거처를 바꿀 정도로 성장했다. 반면에 형체가 된 영은 아직 더 높은 성장의 시작 단계에 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는 이제 이미 더 성숙한 영적인 존재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정한 과제를 성취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섬기는 일을 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모든 창조물들이 성장해 나간다.

미세하지 않은 물질들이 사람들이, 실제 곁보기에는 부패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보기에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실제의 과제를 성취시켰다면, 단지 물질의 입자들로 분해가 되는 것이고, 물질의 입자들은 물질로 된 형체에 둘러싸인 영적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소멸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과 형체 자체가 사라지는 일을 구별해야 한다.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된 영적인 존재들은 그들의 성장정도에 따라 새로운 곁형체를 구한다. 반면에 형체 자체는 그들의 원래의 입자들로 분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새로운 형체로 다시 압축이 될 때까지 다시 휘발성의 원소로 머문다.

그러므로 거친 물질은 단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존재에게 정해진 형체를 입고, 하나님이 높이 성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존재에게 필요한 동안에는 그 형체 안에 머물게 한다. 영적인 과제를 아직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동안에는 이런 형체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과제를 완수하면, 보이지 않게 된다.

아멘

문제. 섬김. 자유의지의 남용.

B.D. No. 1592

1940년 9월 1일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사명이 있고, 어떤 것도 무의미하거나, 목적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존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 아직 의지가 없고, 물질 안에서 섬기도록 강요를 받기 위해 어떤 물질이 필요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붙잡힘을 받고, 이로써 동시에 강제적으로 성장과정이 보장을 받고, 영적인 존재의 의지가 반대할 지라도, 그는 그에게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한다.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존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더 높은 성장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이전의 오랜 과정을 통해 육신을 입게 된 때보다 하나님과의 간격이 더 크게 되면, 인간 안의 존재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저항을 물리치려면, 훨씬 더 큰 의지의 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이런 저항할 힘을 전혀 모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의지가 아직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성이 되어, 의무의 상태에서 섬기는 일을 받아들여만 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인간은 자신의 혼을 특정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더 높이 성장시키기 위해 섬기려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 단지 섬기는 일만이 마지막 구원을 얻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섬기는 일은 이제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고, 이런 사랑이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이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다시 말해 섬기도록 강요를 받는 경우, 비록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되지만,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된 사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그런 행동을 행한 사람의 혼을 둘러싸고, 그에게 상상할 수 없게 괴롭게 한다. 이로써 그가 자유롭게 되는 일이 의문시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모순되는 일을 물질에게 행할 수 있다. 물질 안의 본질적인 존재는 잘못된 요구를 받을지라도, 인간의 요구에 응하고, 인간을 섬겨야만 한다. 대적자가 인간 자신과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를 자신의 수하에 두기 위해 이런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러나 물질은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물질이 형체 안에 묶여 있는 한, 물질은 저항할 수 없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에 필요한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깨달음의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동 방식이 볼 수 있게 악에 해당한다면, 그는 이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의 혼의 상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저조한 상태에 머문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굳은 형체가 풀리는 일.

B.D. No. 2169

1941년 11월 29일

**조** 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까지는 무한히 긴 시간이 흘렀다. 이 시간은 성장 과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겉형체가 존재에게 또한 강제를 의미하지만, 이전의 많은 겉형체에 비해 아주 적은 강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은 형체 안에 거하는 일이 존재에게 특별하게 고통이 아주 크다. 왜냐하면 이런 겉형체가 분해되기까지 생각할 수 없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람의 겉형체는 단지 짧은 시간 동안만 본질적인 존재인 혼에게 겉형체로서 의도되었고, 인간도 이 기간을 아주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겉형체인 육체가 자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이 땅에 거하는 일이 특히 괴롭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은 자신을 위해 성취할 수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거하는 일을 억압적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는

또한 묶인 상태를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몸이 쉽게 충족할 수 없는 요구를 통해 자신을 속박하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그를 속박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혼에게는 몸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사슬이고, 이 사슬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므로 혼은 자신의 갈망을 충족시키기까지는 걸형체 아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혼은 언제든지 육체와 육체의 욕망에 덜 관심을 기울일수록, 사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

이전의 단계에서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일을 수행하도록 강요받았다. 존재가 이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다시 말해 허용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존재에게 다시 은혜였다. 왜냐하면 존재가 이 전에 존재를 이 땅에 처음으로 머무르게 한, 굳은 형체 안에서, 전혀 일하지 않는 상태를 견뎌야만 했기 때문이다.

굳은 형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존재를 둘러싸고 있었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를 견뎌야만 했다. 왜냐하면 존재가 아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대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굳은 걸형체를 해체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굳은 형체의 변화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고, 마음대로 일으킬 수 없고, 이 일은 섬기는 일을 자원하여 하려는 존재의 의지에 달려 있다.

만일 하나님이 굳은 형체 안에 묶임을 받은 존재의 자원하는 의지를 본다면, 하나님은 이런 형체를 느슨하게 해주고, 이제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가 성장하기에 합당한 어떤 일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런 걸형체의 변화를 위해 어떤 강제적인 행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걸형체는 자신 안에 거하는 존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굳은 형체를 파괴하거나 분해하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섬기려는 의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이런 걸형체를 느슨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굳은 형체 자체가 바뀌어 더 이상 본질적인 존재를 속박하며 짓누르지 않게 되기까지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므로 굳은 형체로부터 존재를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자주 개입을 한다. 하나님이 존재에게 더 높은 성장을 할 기회를 주기 원할 때, 항상 일어나는 계획적인 이 땅의 표면의 변화를 통해 개입을 한다. 이런 변화는 인간으로 이미 성장한 영적인 존재가 마지막 걸형체를 극복하는 이 땅의 과제를 성취하지 못할 때,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존재가 계속되는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실제적인 이 땅의 목적을 무시할 때, 일어난다.

그러면 아직 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촉구한다. 존재는 걸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특혜를 갈망한다. 자원하여 섬기려는 의지가 하나님이 존재의 굳은 걸형체를 느슨하게 하고, 존재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한다. 존재는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땅의 과정을 가고, 더 높은 성장을 한다. 걸형체 안에 머무르는 일이 이제 이전의 굳은 형체 안에서만큼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존재가 형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인간이 될 수 있기까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땅의 인간으로서 마지막 시간은 이전의 아주 오래 기간과 비교해서 단지 눈깜짝할 순간이다.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지는 그에게 달려 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삶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단지 묶인 상태가 마음대로 끝나지 않고, 이런 일이 저세상에  
서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아멘

물질을 재구성하는 일. 섬기는 일. 활동. 높이 성장하는 일.

B.D. No. 2333

1942년 5월 12일

 든 물질에는 영적인 존재가 함께 한다. 즉 물질의 실제 본질은 인간의 혼과 동일한 입  
자이다. 그러므로 이를 아는 지식이 인간이 끊임 없이 활동하도록 자극해야 하고, 물  
질의 지속적인 변형이 일어나도록 자극해야 하고, 이런 변형에 도움을 주도록 자극해야 한다.  
모든 존재는 해방되기 위해 노력하고, 형체를 벗어나기를 구하고, 형체를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단지 형체를 극복하는 일을 통해 일어난다. 다시 말해 형체가 해체될 때까  
지 형체 안에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다. 인간은 이제 이 땅에서 일하도록 허용이 되었다. 그러  
므로 인간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 모든 물질을 이웃 사람을 섬기는, 즉 물질의 목적을 달성하  
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형체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 자유롭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돕는다. 그러므로  
이 땅의 활동이 영적인 존재의 성장을 위해 아주 축복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인  
간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에게 섬길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존  
재가 형체 안에 거하는 기간이 불필요하게 연장이 되고, 이는 영적인 존재에게 고통을 의미하  
고, 사람에게 또한 유익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소유하려는 욕망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미 극복한 것을 추구하고, 이제 인간으로써 물질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자신을 자유  
롭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해방되어야 할 것을 추구한다.

사물이 더 빠르게 섬기는 일을 하도록 허용을 받을수록, 존재는 더 빠르게 형체로부터 자유  
롭게 되고, 다시 새로운 형체 안에서 살게 되고, 이로써 그의 목적대로 높이 성장할 수 있다.  
이웃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 사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  
는다. 인간은 또한 자신 안에서 이런 축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에 의해 자유  
롭게 된 영적인 존재가 자신이 자유롭게 되도록 도움을 준 인간을 좋게 여기고, 영적인 존재  
편에서 그의 능력에 합당하게 사람을 돕기 때문이다.

인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끊임 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것도 영원을 위해 옛 형체  
로 남아있는 것은 없고, 자체가 자주 눈으로 감지할 수 없게 끊임 없이 변한다. 인간이 의지를  
드려 어떤 목적에 합당한 것을 만드는 일이 물질이 살아있게 하는 존재를 위해 자신의 공적을  
쌓는다. 인간이 섬기고,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 안의 영적인 존재가 섬긴다. 그러나 사  
람의 의지는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는 일을 통해 이웃 사  
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된 영적인 존재가 또한 영적인 성장에 유리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것  
이다.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일을 수행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  
고, 영적인 존재 자신은 그런 형체 안에서 빠르게 자유롭게 되기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과제를 불행한 과제로 느끼기 때문이다. 단지 섬기는 일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인간이 자신과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기 원하면, 인간은 단지 섬기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웃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항상 결정을 해야만 한다. 만든 물건들이 이웃 사람을 최대한으로 섬기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형체가 분해가 되기까지 자신의 섬기는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물질. 변화와 성장. 섬기는 일

B.D. No. 2789

1943년 6월 27일

 든 피조물에서 영원한 변화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돼야만 한다. 왜냐면 다른 어떤 존재도 피조물이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의 작품 안에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가 변화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변화는 걸형체의 변화를 겪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외적인 변화는 영적인 존재의 실제적인 삶이고, 어느 정도 그 안에 포함된 영적인 존재가 성장한다는 볼 수 있는 증거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저항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걸형체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자신의 종류와 상태로 머무는 모든 굳은 물질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영적인 존재를 포함하고 있고, 이런 물질이 섬기는 일을 위해 필요하지 않으면, 사람이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질이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형성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인간 자신이 그의 걸형체의 변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걸형체가 남아 있고, 이 걸 모양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 사람은 물질에 의해 지배당할 위험에 처하고, 이런 일은 그의 혼에게 불리한 일이다.

소위 죽은 물질로 여길 수 있는, 섬기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셀 수 없게 많다. 이런 것들은 목적 없이 이 땅의 소유물에서 기쁨을 얻게 하는 모든 종류의 장식용 물건들이다. 이런 것들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이런 것들이 섬기는 이웃 사랑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않는 동안에는, 단지 세상의 유혹하는 수단이다. 이런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감각을 자신에게 묶는다. 이런 일은 인간에게 영적 퇴보를 의미한다. 왜냐면 그가 오래 전에 극복한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추구하고, 영적인 존재에게 오랫동안 형체 안에 머무를 기회를 주면서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는 인간의 욕망을 통해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걸형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또한 위로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1943년 6월 27일) 그런 종류의 굳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갈망하는 일은 인간의 혼에 지극히 불리한 일이다. 왜냐면 이런 일이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기 때문이고, 인간이 물질을 이기는 대신에 물질이 인간을 패배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섬기는 목적이 없는 물건은 인간의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일에는 적합하고, 이제 그의 형체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 그 안의 영적인 존재가 끝없이 긴 기간 동안 갇혀 있고, 위로 성장할 수 없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에 방해받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의지가 없을 지라도, 인간이 굳은 물질을 돌보면서 모든 변화로부터 보호하면서, 자신의 죽은 물질을 향한

사랑으로 영적인 존재가 머무는 기간을 강제로 연장하면서, 그런 영적인 존재를 돕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제 섬기는 목적을 가진 사용돼야 할 물건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의 실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물건들 안에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걸형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이런 물건을 사랑하는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아주 고통스러운 사슬이다. 다시 말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걸형체가 파괴된다면,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는 자원하여 섬기고, 외적인 속박은 인간의 그 형체에 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느슨해지거나 파괴된다. 이런 창조물이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려면, 걸형체의 변화가 즉 모든 창조물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고, 모든 창조물 안의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을 통해 성장해야만 한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다음 성장 단계를 위해 다시 자유롭게 된다.

사람의 물질을 향한 사랑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의 강제의 상태를 연장시킨다. 하나님을 향한 저항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인간의 영적인 존재와 연결을 이루려는 생각에 영향을 받는 완고한 영적인 존재는 인류를 물질주의로 몰아가고, 인류 가운데 혼의 큰 피해를 입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는 걸형체가 그에게 주는 강요를 느끼고, 불법적으로 이런 강요를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인간의 생각에 혼동을 일으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인간의 죽은 물질을 향하는 약점을 사용하여, 서로 간에 사랑이 없게 만들고, 이웃 사람의 물질을 불법적으로 얻게 하고, 필요한 경우 폭력을 통해 이를 달성하게 한다. 그런 일이 또한 물질을 파괴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의 사랑 없음으로 자신의 걸형체가 파괴되면, 무지한 영적인 존재는 자유롭게 됐다고 믿는다. 폭력적인 파괴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다. 왜냐면 형체로부터 해방은 형체가 섬기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걸형체를 파괴하는 일은 그런 파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생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이는 다시 섬기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걸형체의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걸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가 높이 성장하는 일이다.

아멘

물질의 변형. 분해. 성장 과정.

B.D. No. 2910

1943년 10월 5일

**물** 질이 변형되는 일에 자주 끝없이 긴 시간을 소요된다. 왜냐면 물질이 분해가 될 때,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가 물질의 분해를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작은 부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즉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완고하게 저항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걸형체이다.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저항하는 일과 이런 저항을 포기하는 일에 대해 알고, 또한 영적인 존재에게 거할 곳을 정해주었고, 영적인 존재의 의지에 따라 영적인 존재가 구원을 받게 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이 땅의 표면과 이 땅의 식물이 다양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여러 창조물의 수명이 다양하고, 특정한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화산폭발과, 이 땅의 광물이 나오는 곳이 다양함과, 사람의 다양한 창의력과 능력을 설명해준다.

더 나아가 굳은 물질에서 유용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사람들의 의지가 또한 자극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런 물건이 필요로 해야만 하고, 이런 물건이 필요한 곳에서 살아야만 한다. 행하기 원하는 세력과 필요로 하는 세력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섬기는 종류의 물건이, 즉 목적을 성취시키는 물건을 위해 물질이 필요하게 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 단지 영적인 존재의 곁형체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게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물의 가장 굳은 형체 안에서 또한 더 성숙하게 된 식물의 창조물 안에서 묵임을 받고 있다. 이런 굳은 형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머문다. 다시 말해 이런 굳은 형체 자체가 단지 최소한의 변화를 겪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섬기는 목적을 성취시키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이런 굳은 형체가 다른 창조의 작품들과 그들의 성장을 위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물질 안에 가장 반항적인 영적인 존재가 머물고 있고, 영원으로부터 영적인 존재의 강박함을 아는 가운데 그런 영적인 존재의 곁형체로 이런 물질이 정해진 것이다. 영적인 존재의 실제 성장과정이 진행되지만, 그러나 느리게 진행이 된다. 인간의 손이 그런 물질의 변형에 적게 기여를 한다. 이런 물질은 대부분 자연의 권세를 통한, 폭풍과 열과 비와 화산폭발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단지 변형이 된다.

그러므로 이 땅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한다. 이 땅은 자신의 곁형체를 변형시켜야만 하고, 또한 이 땅 내부의 영적인 존재가 수시로 이 땅의 표면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한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의 표면에서 성장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머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물질이고, 물질의 최종 목표는 분해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분해되는 일에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굳은 물질 안에 묵임을 받은, 높이 성장할 수 있기 위해 언젠가 자유롭게 되어야 할 영적인 존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간격으로 분해되는 일이 항상 또 다시 반복해서 발생한다.

영적인 존재를 위한 이 땅의 과정은 이제 수많은 곁형체를 거치는 과정이다. 영적인 존재가 섬기는 일을 통해 이런 곁형체가 해체될 때까지 섬기면서 모든 곁형체를 극복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천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땅의 성장과정은 끝이 난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모든 것이 부분적으로는 인간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변형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변형 과정에 특정한 법칙이 지켜져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창조물이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어떤 것을 불법적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파괴한다면,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되고, 이런 영향이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 자신에게 미친다.

섬기려는 의지가 성장의 시작이다. 영적인 존재는 각각의 형체 안에서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자원하여 수행하면서, 섬기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증명해야만 한다. 영적인 존재가 비록 의무의 법칙을 따른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가 섬기기 위해 각각의 형체 안에 머무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그럴수록 이제 더 빠르게 곁형체를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의 성장과정은 가장 다양한 종류로 형체가 변화되는 끝이 없는 연결고리이고, 영적인 존재의 자원하는 의지가 각각의 형체 안에 머무는 시간을 정한다. 그러므로 창조물 전체가 변화가 되어야만 한다.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물 수 없고, 끊임없이 새로운 형체를

입어야만 한다. 모든 형체는 섬기는 목적을 성취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체 안의 영적인 존재가 마지막 걸형체인 인간에 도달하기까지 성장할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모든 걸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유로운 존재로 영적 영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자유의지로 마지막 이 땅의 삶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아멘

물질을 재구성한다. 일하는 축복. 구원.

B.D. No. 3993

1947년 3월 7일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항상 일하고, 또한 물질적 형체 안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돕는다. 모든 변화가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 주변의 물질이 섬기는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면, 이런 물질을 변형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은 또한 너희가 영적인 위험에 처한 영적인 존재를 돕는 일로 나타나고, 너희는 이런 돕는 일은 영적인 존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을 통해 할 수 있다.

너희를 둘러싼 모든 존재가 활동할 수 없다면, 고통을 겪는다. 왜냐면 존재는 활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의 이런 의지에 기초하여 형체 안으로 한 섬기는 일을 하는 목적을 가진 걸형체를 입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영적인 존재의 고통을 연장시키지 않고,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영적인 존재를 도와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추구하는 일이 소유물을 얻고, 재물을 모으는 일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소유한 물질의 단지 적은 부분이 물질의 실제 목적에 합당하게 만든다. 반면에 그의 대부분의 소유물은 행하지 않고 머물게 된다. 왜냐면 대부분의 소유물이 섬기는 일을 하도록 허용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지 못한 채, 오랜 동안 물질 안에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가 해체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실패한 곳에서, 사람의 이 땅의 소유물을 향한 욕망이 물질의 실제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적인 재물을 모으도록 유도하는 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영적인 존재를 돕는 일은 이해할만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이런 재물을 빼앗고, 이로써 물질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자신을 구원하는 더 높은 기회를 주는 일은 이해할만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물질에 변화를 주는 일을 수행하도록 고난에 빠지게 하면서 구원 역사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모든 소유물이 파괴된 때에 창조적이고 조성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이 사람에게 주어진다. 인간은 이런 가능성을 활용해야 한다. 이로써 자신과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에게 축복이 되게 해야 하고, 모든 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 한다. 왜냐면 이런 일이 유일하게 구원하고, 영적인 존재의 성장 정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활동하지 않는 일은 영적 성장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허용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땅의 재물을 모으는 일을 통해 활동이 증가하여, 재물이 목적에 합당하게 활용이 되어, 그 안에 묶임을 받은 모든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허용을 받는다면, 이 땅의 재물을 모으는 일이 축복된 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도와야만 한다. 왜냐면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는 대부분 영적인 존재가 섬길 기회를 빼앗긴 곳에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에게 정해줘야만 하거나, 사람의 의지와 생명력을 통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야만 하는 점에서, 인간의 도움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이 큰 축복이 된다. 때문에 물질적인 소유물이 감소되는 일은 항상 열심히 일하게 만들 것이고, 이런 일은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와 인간 자신 모두를 위해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에게 섬길 가능성을 제공할 때,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인간으로써 스스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기까지, 항상 또 다시 겉형체를 극복할 수 있게 될 때, 모든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는 과정이 단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굳은 물질로부터 구속.

B.D. No. 6386

1955년 10월 26일

**성** 장 초기의 영적인 존재들은 가장 굳은 겉형체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다. 왜냐면 존재의 저항이 줄어들 때까지 부드러운 겉형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영적인 존재에게 그의 형체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이 영원히 영원한 시간에 걸쳐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원시 시대부터 앞으로 영원히 파괴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창조물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안에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도록 인도하는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면, 너희는 묶여 있는 영적인 존재에게 언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 의문이 생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 영적인 존재가 굳은 형체를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자신이 저항의 감소를 깨닫는 가운데 이런 창조물이 존재하는 기간을 정했고 이런 창조물이 해체가 되는 종말을 영원으로부터 정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간격마다 창조물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다. 엄청난 화산 폭발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해체가 일어날 수 없다. 이런 폭발의 원인은 자유의지로 폭력적인 분출을 초래하는 법칙을 어기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자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유의지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고려되어 있다. 하나님 자신이 자연적으로 이런 창조물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런 법칙을 어기는 행동들로 인한 결과조차도 형체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를 섬기기 위해 허용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항상 굳은 형체 안에서 고통당하는 영적인 존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돕는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에게 더 가벼운 겉형체를 제공하고 영적인 존재는 그 안에서 성장의 길을 계속 가야만 한다. 어느 누구도 이런 긴 기간의 투옥이 의미하는 영적인 존재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상상하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자유한 상태에서 실패하고 높은 곳에 도달하는 대신에 가장 깊은 어두움 속으로

다시 침몰한 영적인 존재가 새로운 창조물 안에서 끝 없이 긴 시간 동안 다시 묶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너희 사람들은 모든 창조물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 바라본다. 창조물 안에는 한때 타락한 전적인 자유와 빛을 가진 원래의 영들이었던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고 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묶여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자유와 빛에 도달해야 한다. 이런 성장 과정이 또한 피할 수 없게 때때로 창조물을 파괴하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이 땅의 종말에 대한 그런 언급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거부한다.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이 단지 그런 생각을 하고 예고 된 종말이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견해를 이런 지식이 부족한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생각해야 하고 질문해야 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생각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게 돼야 한다.

이 땅에 다가오는 해체나 또는 파괴를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는 것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자신을 위해 요구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그가 창조물 안의 모든 존재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영적인 존재가 단지 그의 성장 과정에서 아직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곁형체를 바꾸고 이 모든 형체로 섬김으로써 그런 성장 정도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존재에게 이런 성장을 해나갈 가능성을 제공한다.

영원에 영원한 기간이 걸릴지라도 언젠가 영적인 존재에게 형체가 굳은 형체를 벗어나 다소 느슨한 곁형체를 입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계획에 항상 영적인 존재가 굳은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이 정해져 있다. 이 날에 한 구원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구원 시대가 시작이 된다. 영적인 존재의 성장은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한때 자신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까지 존재를 끊임없이 돌보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존재가 모든 자유를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영원히 축복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한다.

아멘

사람을 향한 물질의 영향.

B.D. No. 4466

1948년 10월 21일

**시** 판을 받은 물질은 그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 자신과 연합하도록 촉구하는 큰 영향을 사람에게 미친다. 즉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갖게 한다.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는 인간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고 노력하고, 인간에게 자신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려고 시도하고, 인간과 연합하기 위해 시도한다. 왜냐면 영적인 존재가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저항하는 일에서 자신을 더 강하게 느끼고 또한 아직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항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는 어떤 의미에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존재가 향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영향을 받고, 그들 자신이 물질을 가장 크게 갈망한다. 그러므로 단지 서로 다른 성장 단계에 있는 같은 영적인 존재들과 연합한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물질에 묶어 두면, 그는 이미 이룬 더 높은 성장 단계에서 퇴보할 위험에 처한다. 그러므로 물질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 아무리 경고해도 충분할 수 없고 물질을 극복하도록 끊임없이 경고해야 한다.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는 또한 사람이 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원하여 봉사하고 도울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이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사람들이 소유하려는 탐욕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통해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의 물질을 소유하려는 잘못된 사랑을 깨어나게 하지 않는 물건을 통해 할 수 있다.

물질이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을 향한 저항은 이미 꺾인다. 그러나 섬기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물질은 자주 사람 안에 이를 소유하려는 욕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물질은 혼에 위험이 된다. 왜냐면 물질이 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혼 자신이 다시 물질 안으로 육신을 입는 단계로 퇴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는 자신이 원했던 일을 달성한다.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를 자신에게 끌어드려, 어느 정도 자신의 힘을 강하게 하고, 인간은 인간의 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이 다시 퇴보하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죽은 물질을 인간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에 희생이 된다. 왜냐면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대적자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증가시키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들이 항상 저항을 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향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잃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존재를 잃게 되는 일을 막으려 고 한다. 비록 하나님의 대적자가 물질 자체에게, 즉 물질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영적인 일에 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을지라도,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복종한다. 영적인 존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자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수단으로 세상의 물질을 사람들의 눈 앞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에 의해 물질을 향하도록 주의를 받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사람은 이런 영향을 벗어나거나 또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주 의지의 자유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그의 혼의 원수의 충동질에 굴복한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항하는 싸움은 인간이 이 땅의 삶에서 벌여야 할 실제 싸움이다. 왜냐면 인간이 물질을 극복했다면, 그의 성장이 또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면 그를 이 땅에 묶어둘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의 혼은 영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혼이 높은 곳을 향한 비행 중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이 이미 오래전에 극복한 단계로 다시 떨어질 위험이 더 이상 없고, 인간이 동시에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영적인 존재는 이런 도움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물질 안의 영적인 존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여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이 되기까지 모든 형체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이 굳어진 역사이다.

B.D. No. 5479

1952년 9월 4일

**나**는 모든 작은 생명체와 모든 작은 식물과 모든 모래 알갱이 안에 내가 임재하고, 내가 들어 있지 않는 것이 없고, 나 자신을 증명해주는 내 힘을 충만하게 받지 않는 것은 없다. 왜냐면 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유지될 수 없고, 유일하게 내 힘이 나에게 의해 생성된 존재가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 내 힘과 의지가 내 안의 생각에서 떠오른 것을 생명이 되게 했다. 내 의지가 모든 생각을 묶어 형체가 되게 했다. 나로부터 나온 힘인 영적인 입자가 형체가 되었고, 이 형체는 내 의지가 물러설 때까지 유지가 된다. 형체는 변할 수 있지만 형체 안에 있는 힘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단지 증가할 것이고, 항상 더 강력한 형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온 힘이다. 그러나 이 힘은 다른 정도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내 지혜가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깨달아 정해진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러나 내가 생성되게 한 것들 중에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없고, 목적에 도달해야 하는 곳에서 내 사랑과 지혜가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모든 과정을 정한다. 나는 항상 이 목표를 향한 관점에서 창조하고 조성한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단계가 내 눈 앞을 지나가고, 내 의지와 내 권세가 사랑과 지혜가 목적에 합당하다고 깨달은 일을 수행한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들 중 어떤 것도 우연히 창조된 것은 없다. 내 계획은 가장 깊은 지혜로 정해져 있고, 창조하려는 내 의지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창조물들이 끊임없이 생성될 것이다. 왜냐면 내 해야 할 수 없는 힘이 활동하기를 원하고, 항상 단지 긍정적인 의미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활동하기 때문이고, 나에게서 흘러 나오는 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말할 수 없게 축복되게 하고, 건설적이고, 지원해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성공을 깨닫게 될지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생성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올바른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것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머문다.

왜냐면 내 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없고, 단지 부정적인 의지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 힘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일을 허용하지만, 그러나 단지 나로부터 생성된 존재가 자유의지로 언젠가 귀환하게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일을 허용한다. 왜냐면 부정적인 의지를 바꾸기 위해 모든 것이 생성되었고, 모든 볼 수 있는 창조물들이 부정적인 의지를 긍정적인 의지로 바꾸는 일에 기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나는 또한 물질적 형체가 그들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해체하고, 내 뜻대로 다시 새로운 형체를 형성한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형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내 뜻대로 잘못된 방향을 향한 영적인 존재를 의지가 완전하게 변화되게 하는 마지막 목표를 섬겨야만 한다.

(4. 9. 1952) 그러나 창조물이 또한 내 의지와는 반대로 해체 될 수 있다. 즉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내 뜻대로 또한 내 뜻과 반대로



행할 수 있는 인간에 의해 창조물이 해체 될 수 있다. 사람 안의 영적인 존재는 악한 영향을 받아 그런 일을 행하고, 자신의 잘못된 방향을 잡은 의지로 내 힘이 건설적인 효과를 갖는 곳에서 파괴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대적하는 세력의 뜻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파괴된 창조물은 그 안에 거하는 영적인 존재를 조기에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그의 성장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새로운 형체가 필요하고, 이제 내 의지가 그를 위해 자신 안에 내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적인 존재에게 형체를 만들어 준다. 창조하고 조성하는 능력이 그들 안에서 잠들어 있는 원래의 힘을 증명하고, 그가 나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한때 나에 의해 생성된 피조물의 원래의 사명은 다른 데에 있고, 피조물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런 원래의 사명을 돌이킬 수 없게 성취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나에 의해 생명으로 생성되었지만 모든 존재가 생명을 즐거워 하는 것은 아니고, 죽음을 구했지만 존재는 영원히 소멸될 수 없고, 단지 죽은 상태에 머물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겉으로 보기에 가장 굳은 물질 안에서 죽은 자들 안에 거한다. 왜냐하면 내 힘이 그들 안에 없다면, 물질이 너희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힘의 효력이 너무 작아 이런 물질은 긴 시간이 흐를지라도 어떤 변화도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힘이 절대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끝없이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 힘은 변화를 일으킨다.

잘못된 방향을 잡은 의지의 저항이 약해질 경우, 내 의지는 증가된 힘으로 개입하여, 자연의 권세를 통한 파괴가 더 짧은 시간 내에 영적인 존재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영적인 존재는 새롭고 더 가벼운 형체 안에서 자신의 성장과정을 계속한다. 내 의지가 항상 결정하고, 내 창조물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일에 항상 일정한 질서가 있고, 내 대적자는 창조물에 대한 모든 권세를 빼앗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이 의지가 나에게 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대적자에게 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 대적자가 자신에게 권세가 없는 것을 사람이 파괴하도록 만들면서 사람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적자는 창조물을 파괴하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가 한때 깊은 곳으로 끌어 내렸고, 영적인 존재가 다시 자신의 원래의 사명대로 살고, 넘치는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제 말할 수 없게 축복을 받도록 내가 다시 끌어 올리기를 원하는 창조물 안의 영적인 존재가 성숙해져서 그가 영적인 존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아직 형체를 입지 않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

B.D. No. 7757

1960년 11월 27일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끝없이 먼 거리에서 거한다. 그들은 아직 성장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존재는 깊은 곳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굳어진 입자들이고 내 의지가 아직 그들을 붙잡아 형체를 부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존재는 아직 가장 적은 의지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나를 대항해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아주 강해서 긴밀하게 연합

되어 있고 내 사랑의 힘으로 서로 분리시키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가 부분적으로 나에 의해 붙잡힘을 받고 영적인 입자들이 느슨해지고 굳어진 상태를 벗어날 정도로 내 사랑의 빛을 따를 때까지 영원히 굳어진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존재가 내 사랑의 빛을 따르면 그는 붙잡힘을 받고 다양한 종류의 물질로 변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나를 향한 저항을 포기할 때까지 아직 영원에 영원한 기간이 필요하다. 왜냐면 존재가 가장 굳은 물질로부터 성장 과정을 시작할 것이고 물질이 분해가 되기 까지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주인을 가장 깊은 곳까지 따라간 첫 번째 존재였다. 그는 원래 초기에는 가장 밝은 빛 가운데 거했고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또한 자신이 나를 떠났을 때 자신의 큰 죄의 크기도 알았고 그의 나에 대한 저항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고 내가 주는 가장 작은 모든 빛에 저항했다. 이런 내가 주는 가장 작은 빛이 영적인 입자들을 감싸고 형제를 부여할 수 있고 내 뜻에 따라 물질이 될 수 있도록 굳어진 영적인 입자들을 분해시킬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저항하는 정도와 반역의 정도가 타락한 존재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한다. 너희 사람들이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 아직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의식을 잃은 수많은 존재들을 생각한다면, 너희는 내 사랑의 의지가 항상 또 다시 영적인 존재를 받아드리는 창조물을 생성하는 곳에서 영원한 기간이 걸리는 일과 왜 걸리는 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존재가 성장 과정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 경직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돼야만 하고 존재가 온전함에 도달하고 원래 초기에 자신이 처했던 상태에 다시 도달하기 까지 다시 영원에 영원한 기간의 성장 과정이 걸린다.

너희가 이에 관해 생각하면, 너희는 새로운 구원시대가 항상 이전 성장시대를 뒤따라야만 하고 내 창조하려는 의지가 오랫동안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타락한 존재는 영원히 나를 떠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 타락한 존재가 아버지의 심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각 구원 시대가 시작될 때 내 사랑의 빛이 존재에게 도달하면, 존재를 자극하면서 이런 굳어진 물질 안에 작은 생명이 임하고 그러면 존재들이 계속해서 서로 분리되고 자신들을 포로가 되게 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가 나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저항을 줄일 때까지 존재를 단지 묶어 둔다. 내가 이를 깨닫고 그러면 또한 이런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창조물을 준비한다. 이런 일이 또한 너희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많은 창조물들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이고 너희가 머무는 기간을 전혀 계산할 수 없는 굳은 광물의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이런 굳은 물질도 해체되는 시간이 온다. 왜냐면 내가 언제 계속되는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아직 묶여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도 향하고 영적인 존재는 언젠가 자유롭게 될 것이고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 없이 많은 타락한 원래의 영들의 무리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들 **이** 생성되었다. 이런 구속받지 못한 영들은 창조물 안에서 성장 과정을 갈 수 있기 위해 마찬가지로 끝없는 많은 창조물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세계들은 또한 이런 세계들의 창조물 안에 구속받지 못한 존재들이 거할 수 있게 준비되었다. 왜냐면 빛의 존재들의 축복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쉬지 않고 창조물들을 생성하는 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각각의 창조물들이 자신 안에 거하는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목적을 성취시킨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이 가운데 빛의 존재들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느낀다. 반면에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은 언젠가 마찬가지로 아직 축복되지 못한 존재들을 위한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고통이 충만한 길을 가야 하고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빛의 세계는 항상 새로운 창조물들을 창조하도록 끊임없이 충만하게 받는 힘을 사용한다. 왜냐면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아직 아주 많은 묶임을 받지 않은 입자들이 빛의 세계의 빛에 의해 붙잡힘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자들은 아직 묶이지 않은 상태로 우주 가운데 떠돌고 있고 그들이 이제 성장의 길을 시작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은 먼저 물질로 굳어져야만 한다.

왜냐면 물질은 형태로 압축된 영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자신을 붙잡도록 허용해야만 하고 이로서 모든 사랑의 힘을 거부하는 초기의 저항을 포기해야만 한다. 빛의 존재들은 그들의 사랑의 힘으로 이런 영적인 입자들을 감싸고 영적인 입자들이 저항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아직 저항하는 영적인 존재를 행복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고 이로서 영적인 존재가 자신을 붙잡도록 허용한다. 이로서 첫 저항이 꺾이게 된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의무 단계에서 모든 창조물들을 거치는 과정을 간다. 이런 일이 실제 극도로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다. 왜냐면 이 길이 언젠가 결국 온전함에 도달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빛이 충만한 영적인 존재는 항상 깊은 곳으로 떨어진 존재를 돕고 이로서 비록 이런 길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게 되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끝없는 기간이 필요할지라도 깊은 곳을 벗어나게 한다. 그러면 한때 타락한 원래의 영 자신의 모든 입자들이 다시 모이고 그에게 가장 작은 영적인 입자라도 부족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는 그가 타락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된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그 안에 없다. 즉 그에게 아직 사랑이 전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위로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자신의 신적인 영의 불씨를 주었을 때 가장 큰 사랑의 역사를 행했고 영의 불씨가 사람이 이제 자신의 원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고 사람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될 수 있게 한다.

빛의 존재들이 사람들을 가능한한 가장 높은 성숙한 정도가 되게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일은 저절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면 바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움을 주는 일이 바로 빛의 존재들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런 일을 막을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기간을 끝없이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빛의 존재들의 사랑이 아주 크고 이런 사랑은 법에 묶여 있고 인간

의 자유의지가 허용하면 비로소 역사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너희의 성장 과정을 알게 되거나 또는 너희가 너희의 성장 과정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때 이런 가르침을 믿는다면, 너희 모두가 언젠가 인간의 곁형체를 벗어나 빛의 나라에 다시 영접을 받고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증거를 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무지한 가운데 머물렀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가 한때 깊은 곳으로 타락했을 때처럼 다시 너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게 된다. 너희가 또한 너희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영원에 영원한 기간을 걸쳐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다시 실패하면, 너희는 또한 더 나은 운명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이 단지 너희 자신을 돕도록 허용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아멘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지. 영적인 창조물과 물질적인 창조물.

B.D. No. 3943

1946년 12월 25일

**무**한을 다스리는 영은 끊임없이 활동한다. 왜냐하면 영이 창조하고 조성하면 힘을 사용하는 일에 피곤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의 힘의 발산은 절대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새로운 영적인 창조물과 물질적인 창조물이 창조된다. 그는 아직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의 구원을 위해 그의 생각이 물질적인 형체가 되게 한다. 그는 또한 하늘의 모든 영광이 열려 있는 빛의 존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기적적인 영적인 창조물이 생성되게 한다.

그의 창조주의 영과 그의 창조하려는 의지는 능가할 수 없고, 절대로 끝이 없고, 항상 그의 아주 큰 사랑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 이런 사랑은 자신의 힘에서 나온 모든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비록 영원에 영원의 시간이 지날지라도 새로운 창조물을 생성하는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힘 자체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 힘이 역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 세상적인 존재를, 즉 물질을 살아 있게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지속적으로 힘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고, 힘을 받는 일을 통해 한때 그가 자유의지로 떠났던,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물질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 밖에 있는 영적인 존재의 구원을 돕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 자신의 힘을 증가시킨다. 모든 물질적인 창조물은 영적인 존재의 구속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영적인 창조물이 최종 목적이다. 즉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를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하는 일이 최종 목적이다.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물이 더 이상 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창조물 안의 영적인 존재가 더 이상 위로 성장하지 못할 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의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하나님은 또한 창조물이 사라지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창조한 것을 분해한다. 이로써 영적인 존재가 다른 형체 안에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창조물들을 분해하는 일은 단지 영원으로부터 그의 지혜가 창조물 안에 묶임을 받은 영적인 존재에게 필요하다고 깨달은 대로,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일어난다. 반면에 영적인 창조물은 불멸이고 단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인간의 이성이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심장이 꿈꿀 수 없는 항상 더욱 영광스러워지는 형상이 생성된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시대는 항상 과거의 창조물과는 다른 더욱 영광스러운 창조물을 보여준다. 이런 창조물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함과 지혜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힘은 무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은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의 규모는 혼이 영적인 창조물과 이 땅의 창조물을 볼 수 있는, 특정한 성숙한 정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혼은 비로소 자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그의 사랑으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